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 보고서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

7년의 실험, 길을 열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 보고서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

7년의 실험, 길을 열다

Contents

	대표 인사말	04
	고문 인사말	06
	제3자 검증 의견서	08
	요약	11
I. 일반 현황	01. 조직 구성과 운영	16
	02. 사업 개요	18
	1) 기금 사업: 적극적인 사회가치 투자자	18
	2) 기반조성 사업: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자	19
	03. 통제 구조 및 보고 관행	20
	1) 통제 구조	20
II. 임팩트 전략		21
	2) 보고 관행	21
	01. 목표와 전략	22
	1) 환경 진단	22
	2) 추진 방향	23
	3) 변화 이론	24
	02. 사업 모델	25
	1)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운영	25
	2) 중개기관 육성 전략	26
	03. 포트폴리오 전략	28
III. 프로세스와 구조	1) 임팩트-수익 스펙트럼	28
	2) 포트폴리오 균형 전략	29
	01. 사업 프로세스	30
	02. 임팩트 관리 체계	31
	1) IMP 기반 임팩트 관리 체계 도입	31
	2) 심사 단계의 임팩트 중심 접근	32
	3) 모니터링 단계의 임팩트 관리	33
	03. 리스크 관리 방안	34

IV. 포트폴리오 현황	01. 총괄 현황	1) 개요	36
		2) 자산군별 할당 내역	36
		3) 프로그램 구성	38
		4)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39
		5) 회수 현황	41
	02. 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1) 임팩트 펀드 출자 -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42
		2)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인내자본 공급	44
		3) 프로젝트 금융 - 사회목적 프로젝트 추진자금 공급	45
		4) 중개기관 투·융자 및 재난대응 지원	47
	03. 회수 내역		48
V. 기반조성 활동 내역	04. 사회연대경제 피투자기업 현황	1) 활동 영역 - 사회적 가치 중심	50
		2) 기업 유형 및 지역·업종 분포	53
		3) 매출, 자산 및 고용 규모	56
	01. 중개기관 육성 및 교류 촉진	1) 교육 및 역량개발 사업	58
		2) 중개기관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 포럼’ 운영	59
	02.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활동	1) 사회적 금융 활성화	60
		2)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지원	61
		3)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61
		4) 사회연대경제 방식의 공제 활성화 등	62
	03. 홍보 및 국제교류	1) 홍보	62
VI. 회고 및 향후 과제		2) 국제교류	64
	04. 자금공급 사각지대 대응	1) 기술역량을 가진 사회혁신 주체 육성	66
		2) 코로나19 재난 대응	67
	01. 주요 성과	1)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중개기관의 성장	69
		2) 다양한 사회적 투자자의 등장	71
	02. 회고 및 평가		73
	03. 향후 과제	1) 추진 방향	75
		2) 중점 과제	76

사회적 금융의 길을 함께 만든 여러분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변함없는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인간적인 금융’을 꿈꾸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모델인 ‘사회투자 도매기금’으로 2019년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할 중개기관도, 그 중개기관에 자금을 공급할 도매기금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공급한 232억원의 마중물 자금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공익법인, 그리고 이 기간 새롭게 등장한 121개 투자자들의 자금과 결합해 1,885억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8배가 넘는 자본 레버리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금융이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결과였습니다. 함께한 23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가운데 초기부터 동행한 15개 전문기관의 운용자산은 4년 만에 연평균 23.7%씩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단위 펀드운용사부터 지역과 업종에 뿌리를 둔 비영리 중개기관까지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뜻깊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성과만을 보이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급한 자금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정책자금에 기대고 있고, 지역에서 애쓰고 있는 중개기관들은 아직 영세합니다. 회수가 끝난 자금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끝까지 추적하는 체계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숫자와 사례들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년의 실험을 넘어, 사회연대경제의 든든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년의 성과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혼자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금을 출연해 주신 은행권과 상호금융기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함께 호흡하며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고민했던 중개기관들, 정책의 틀을 함께 고민해 주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켜온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조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만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의 미래를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단순히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투자자와 중개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하승창



2019년 1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부푼 기대와 함께 출범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회투자 도매기금’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 흘러가는 새로운 ‘돈의 길’, ‘사회적 금융’을 만들어보자던 결단은 두렵기도 했지만, 무척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은행연합회와 협동조합 금융,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뜻을 모아 출연한 소중환 마중물 자금으로 수십 개의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이 자라났고, 2,000개가 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삶과 공동체를 바꾸는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치로 담긴 것들의 이면에는, ‘사회주택’을 통해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은 청년들, ‘노동공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희망을 찾은 불안정 노동자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협동조합을 세운 마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간적인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던 처음의 선언과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돌이켜보면,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산의 약 3분의 2를 시장수익률보다 낮은 영역에 의도적으로 배분하면서도 재무 건전성을 함께 지켜온 것,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신속히 긴급자금 채널을 열었던 것, 어려운 중개기관을 기계적인 채권 회수 절차에 넘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회복 가능성을 먼저 살핀 것—이 모두가 원칙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는 그 원칙이 자랑스롭습니다.

씨앗은 심었지만,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더 많은 물, 바람, 햇빛, 정성 어린 관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이 도매기금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같은 제도의 틀도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7년 전 설립 당시보다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많은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람과 삶을 중심에 두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 금융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연대와 협력의 원칙을 지키며 함께 걸으면 반드시 길이 생긴다는 것을 지난 7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기록이 기대와 소망에 비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이 나아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의 초입에서 드리는 보고서임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낯선 길을 개척하는데 손잡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선뜻 나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지난 7년을 함께 뛰어 주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및 사회연대경제 기업, 활동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8월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초대 이사장·고문

송경용

제3자 검증 의견서

검증 기간 및 범위

대상기간

2019년 ~ 2025년

검증범위

- 기관개요
- 조직운영 및 임팩트 전략
- 거버넌스
- 임팩트 관리 체계/접근 방식
- 임팩트 측정 및 관리
- 사례 연구(case study)

검증 수행 시기

2026년 6월 ~ 2026년 7월

검증개요

트리플라잇 주식회사(이하 ‘검증인’)는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SVS’)의 의뢰를 받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 보고서(2019 ~ 2025년) :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글로벌 임팩트 투자 업계에서 통용되는 모범적인 보고 기준 및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독립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임팩트 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성과 보고를 비롯해 주요 내용에 대한 책임은 SVS 경영진에 있습니다. 또한 발간된 보고서가 정보 이용자의 요구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차적인 책임 역시 보고서 작성 주체인 SVS에 있습니다.

본 검증인의 책임은 당사가 수행한 검증 절차와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SVS의 보고서가 글로벌 보고 원칙 및 규범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의견(Verification Opinion)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검증 방법론 및 절차

본 검증인은 Impact Frontier의 ‘임팩트 성과 보고서 독립적 검토를 위한 추가 지침’ 및 임팩트 관리 운영 원칙(OPIM)이 제시하는 검증 프레임워크를 준용해 수행했습니다. 검증 과정은 윤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검증인은 SVS의 투자 프로세스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 검토는 SVS가 제공한 자료와 인터뷰를 토대로 사전 합의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문서 검토** : 지난 7년간 조직 및 내부 규정, 자산 운용 현황 및 사후 관리 현황 등 SVS에서 제공한 자료 검토
2. **임직원 미팅** : 거버넌스 체계 및 의사결정 과정, 임팩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임직원 인터뷰 실시
3. **사례 검토 및 실사** : 중요성 기준 및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해 각 자산군별 실제 투자·투자 집행 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사례가 SVS의 정책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관리되었는지 확인

검증 결과

글로벌 보고 기준 및 지침,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SVS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본 보고서는 임팩트 성과 보고 원칙과 규범이 권고하는 보고 항목을 대부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입수한 근거자료의 범위 내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성과 정보와 작성자의 내부 기록 간 중대한 불일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권고 항목 중 미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그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해당 설명은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검증을 통해 도출된 4개 영역별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팩트 전략(Impact Strategy)** - SVS는 4대 중점 과제를 기반으로 사업모델과 포트폴리오 균형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성장을 위해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기관으로서 SVS 기여 전략을 논리적인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임팩트 목표와 투자 전략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거버넌스(Governance)** - SVS는 이사회·감사·투자심의위원회(외부 4인·내부 3인, 총 7인)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거버넌스 통제 구조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리스크 관점의 독립적 검토 기능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임팩트 관리 체계(Impact Management System)** - 발굴·투자의사결정·사후관리·회수의 4단계로 구성된 투자 전 과정에서 임팩트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와 기준을 설계·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 단계에서는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기반 측정 프레임워크와 SVS 고유의 6가지 임팩트 리스크 유형을 활용해 사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무적·비재무적 수단을 모두 활용해 각 자산군별 임팩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리스크 모니터링 및 윤리적 회수에 대한 절차와 원칙이 개별 투자 건에 일관되게 적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임팩트 성과 측정(Impact Measurement)** - 임팩트 KPI를 활용한 성과 모니터링은 자산군과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운영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년간 SVS 활동에 따른 종합적인 임팩트 성과를 하나로 취합해 보고하기에는 실제로 수집·측정된 성과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데이터의 체계성과 완결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립성 확인

당사의 임팩트 검증 담당자는 본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필요한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검증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대상인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 보고서(2019 ~ 2025년) :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SVS에 어떠한 자문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의견서 발행 법인

트리플라잇 주식회사, 임팩트 검증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08, 1502호



요약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SVS)은 사회연대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 출범한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기관입니다. 본 보고서는 SVS가 출범 이후 지난 7년간(2019~2025년) 임팩트 관리 운영 원칙(OPIM)에 따라 도매기금 운용 실적과 성과를 종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관 및 사업 개요

◆ 민간 주도·공공 협력의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기관

- 2019. 1. 2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은행권·상호금융·소비생협의 출연으로 도매기금 281억원을 조성
-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018)에 따라 사회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도매자금 공급기관으로 설립
- 2026년 7월 현재 임원 7인, 상근 10인

◆ 3대 핵심 과제 아래 2개 축으로 사업 전개

- 핵심 과제: ①금융 사각지대 해소 ②참여주체 역량강화 ③사회적 투자자 확대
- **[기금사업]** ‘적극적인 사회가치 투자자’로 임팩트 펀드 출자, 인내자본 융자, 프로젝트 금융 등 도매기금 투·융자 수행
- **[기반조성사업]**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자’로서 역량개발, 네트워크, 정책연구, 국제 교류 등 비금융 활동 수행

임팩트 전략 및 관리 체계

- ◆ **시스템 접근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 전략**
 -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4대 요소(투자자·수요자·중개기관·인프라)를 진단하고, 각 요소별 개선 방향에 모든 사업을 정렬
 -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에 따라 촉매자본 공급과 시장 구축 활동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로 유입되는 자금 확대를 추구
- ◆ **IMP 기반 임팩트 관리체계 도입(2020년)**
 - 임팩트를 5개 차원(목적, 대상, 규모, 기여, 리스크)으로 평가하고, '피투자기업 가치'와 '생태계 활성화 효과'를 이중 층위로 관리
 - 발굴-심사-의사결정-모니터링-회수 전 과정에 임팩트 관점을 내재화하고, 6가지 임팩트 리스크 사전점검 체계 운영
- ◆ **임팩트-수익 스펙트럼에 따른 4개 자산군 운용**
 - 위험·수익률·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A(시장 수익률)~D(손실 감수) 4개 영역으로 자산을 배분·관리
 - 중개기관 자금공급 방식(앵커투자, 펀드·기금 결성 참여, 매칭·연계)과 지원 트랙(규모화, 신규모델, 기성금융, 신규육성)을 구분 운영

포트폴리오 운용 성과

◆ **7년간 55개 프로그램에 232억원 할당, 총 1,885억원 규모로 확장**

구분	실적	구분	실적
프로그램 수	55개	SVS 약정액	232억원(집행 228억원)
총 결성규모	1,885억원	승수 효과	8.1배
평균 만기	6.6년	평균 수익률	4.3%

- SVS 자금 232억원은 정부 자금·지자체 기금·공익재단·금융기관·민간 자조기금 등과 결합해 총 1,885억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으로 운영(승수 8.1배)

◆ **임팩트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 – 약 2/3를 낮은 수익률 영역에 의도적 배분**

자산군	프로그램	할당액	할당 비율
A영역(시장 수익률 추구)	20개	78.9억원	34.0%
B영역(시장 대비 낮은 수익률)	9개	52.9억원	22.8%
C영역(원금 회수, 조달금리)	19개	70.0억원	30.2%
D영역(손실 감수)	7개	30.2억원	13.0%

◆ **균형 잡힌 자산 배분 - 방식·상품·지역 차원의 균형 운용**

- **(투·융자)** 투자 52.5%(122억원, 23개), 융자 47.5%(110억원, 32개)로 균형 배분
- **(상품유형)** 기업금융 71.1%(165억원), 프로젝트금융 28.2%(65억원), 중개기관 투·융자 0.7%(2억원)
- **(지역)** 전국 43.7%, 수도권 25.7%, 비수도권 30.6% - 금융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 비중 관리
- **(집행방식)**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협력 투·융자로 자금의 83.0%(44개 프로그램) 집행 - 간접집행 원칙 견지

◆ **프로그램 유형별 – 성장단계·사회목적별 맞춤 공급**

- **(임팩트 펀드 출자)** 16개 펀드 - 시리즈 A 4개, Pre-시리즈 A 6개, 씨드 6개로 성장단계별 자금 공급 체계 구축
- **(융자 프로그램)** 14개 사업 - 일반 융자 4개, 지자체 기금 매칭 5개, 민간 자조기금 매칭 5개로 인내자본 공급
- **(프로젝트 금융)** 16개 사업 - SIB 2개, 지역혁신·시민자산화 6개, 재생에너지 2개, 사회주택 6개
- **(중개기관·재난대응)** 9개 사업 - 중개기관 등 인프라 투·융자 5개,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4개

◆ **회수 현황 – 윤리적 회수 원칙에 기반한 안정적 회수**

- 2025년말 기준 30개 프로그램에서 회수 개시, 회수 원금 85.5억원(납입액의 37.5%), 회수 수익 6.2억원
- 회수 완료(종료) 11개 사업의 투자원금 48.1억원 대비 회수원금 47.6억원·손실확정 0.5억원, 출연금 기반 8개 사업의 연평균 수익률 7.4%

기반조성 활동(시장 조성자 역할)

◆ 중개기관 육성 및 교류 촉진

- 전문가 양성교육, 지역 중개기관 맞춤형 컨설팅, 자금조달 설명회 운영
- 국내 최대 규모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 포럼' 결성(2020), 연례 써밋·컨퍼런스 개최
- GSG임팩트·GSEF 등 국제 네트워크 참여

◆ 사회적 투자자 개발

- 후순위 출자로 민간·공공 투자자 참여 유인, 자조기금·시민펀딩·공익법인 사회투자 촉진
- 정책연구 및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 추진,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등 유관 법률 발의 지원
- 지자체 기금 운영현황 보고서 발간, 지역기금 운영 개선 정책 연구 및 자문

◆ 자금공급 사각지대 대응

- 비수도권·협동조합 자금공급 비중 관리, 준비된 임팩트 프로젝트(사회주택·시민발전·자산화·SIB) 성공 사례 창출
- 코로나19 재난연대기금 조성, 불안정노동자 노동공제((사)폴빵) 육성, 개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KOICA 협력)

7년 성과 – 사회연대금융 생태계의 성장

◆ 다양한 사회적 투자자의 등장

- 총 121곳(기관 77곳·개인 44인)이 투자자로 참여, 정책성 도매자금(56.9%)을 제외하고도 813억원의 신규 사회적 투자자 자금을 동원
- 공익법인·금융기관·기업재단·지자체·시민펀딩 등으로 투자자 저변 확대, 중개기관 자체 투입액도 101억원(자조기금 10.6억원 포함)

◆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의 성장과 분화

- 초기부터 협력한 15개 전문 중개기관의 운·용·자·산(AUM) 4,882억원(2025년), 4년간 연평균 23.7% 성장
- 피투자기업 수 2,048개(2025년)로 연평균 18.4% 증가, 전국형 펀드운용사부터 지역·업종 비영리 중개기관까지 모델 다층화

종합 평가

- ① **(도매기금 모델의 유효성 입증)** 232억원이 1,885억원으로 확장(승수 8.1배), 다만 정책성 도매자금 의존(56.9%)은 과제
- ② **(전문 중개기관 생태계의 형성·분화)** 23개 기관과 파트너십, 모델 다층화. 지역 중개기관의 영세성은 구조적 과제
- ③ **(임팩트-수익 균형 포트폴리오)** 2/3를 낮은 수익률 영역에 배분하면서도 재무적 지속가능성(4.3%) 확보
- ④ **(IMP 기반 임팩트 관리체계의 실무 정착)** 간접 데이터 정합성·회수 후 임팩트 추적은 미완 과제
- ⑤ **(금융 사각지대 대응 및 재난대응 채널 작동)** 평시 인내자본 공급과 위기 대응 모두 수행, D영역(원금 손실 감수) 지속 위한 재원 구조는 과제
- ⑥ **(사회적 금융 고유의 윤리적 회수 원칙 적용)** 유연자본화·부실채권 차등 대응 제도화, 도입효과 추적관찰 중
- ⑦ **(시장 조성자로서의 기반조성 활동)** 생태계 공백 보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등 제도화는 다음 단계 과제

향후 과제

◆ 2대 추진 방향

- ① **(목적) 임팩트 규모화:** 성장 지원을 위해 용자 중심을 넘어 위험·수익을 공유하는 투자기제 강화
- ② **(방식)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투자자, 중개기관, 수요, 인프라의 다층적 생태계 조성

◆ 7대 중점 과제

- ① 민관협력 도매기금 재원 확충 및 제도 기반 마련
- ② 중개기관 생태계 다층화·역량 강화
- ③ 조직 유형별 성장지원 체계 구축
- ④ 지역 기반 사회연대금융 순환체계 구축
- ⑤ 양질의 자금 수요 개발 및 임팩트 프로젝트 지원
- ⑥ 사회적 투자자 다양화·저변 확대
- ⑦ 임팩트 관리체계(IMM) 고도화 및 윤리적 회수 체계 완성

I. 일반 현황

01

조직 구성과 운영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SVS)은 사회연대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 출범한 공익법인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과 협력하는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촉매자본을 공급하며,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지원합니다.

표 1. SVS 미션

재단 정관 제3조(목적) 본 재단은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사업,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 사회적가치 증진 및 확산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배경

SVS는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영국·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사회적 금융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가치기금에 요구된 역할은 사회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SVS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권, 협동조합 금융기관, 소비생협의 출연으로 2019년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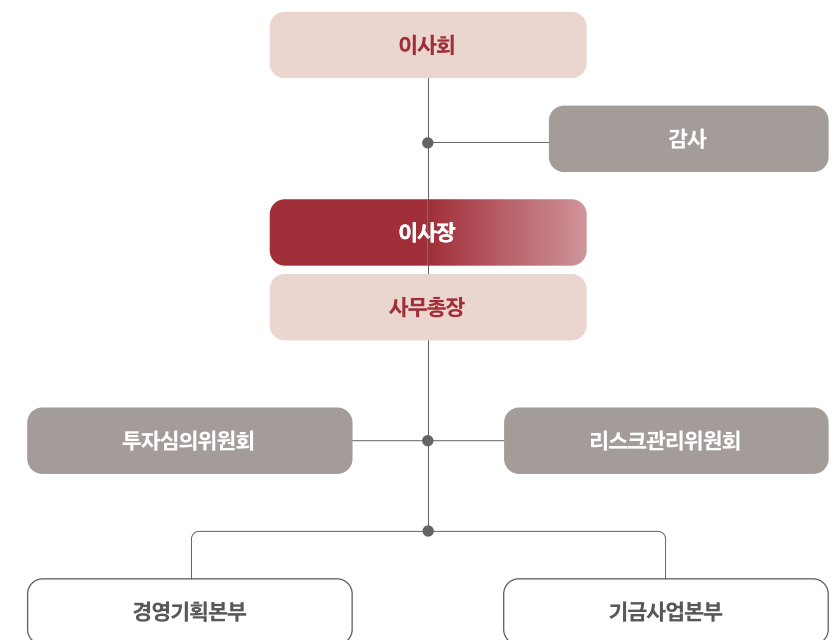
- 설립일: 2019. 1. 2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기획재정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2018. 12. 27)

- 홈페이지: <http://www.svsfund.org>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1길 14-10, 2층(서교동, 강화빌딩)
- 주요 사업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발전을 위해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융자, 보증
 -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사회목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융자 보증 등 지원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보육 및 투자, 융자 등 지원
 -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 및 연구개발
 - 사회적 금융 발전을 위한 포럼, 학술대회, 강연, 교육 등 국내외 행사 및 홍보

조직 구성

2026년 7월 현재 임원은 총 7인이고, 상근 인력은 10인입니다. 사무국은 경영기획 본부와 기금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1. SVS 조직도



이해관계자

주요 이해관계자는 출연기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대표성 있는 협의회 및 지원조직,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리더 그룹 등이며, 각 그룹과 상시적인 협력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잠재적 사회적 투자자 및 국내외 협력기관, 전문가 그룹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SVS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 참여주체 역량강화, 사회적 투자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아, ①“적극적인 사회가치 투자자”로서 도매기금을 조성·운용하면서 ②“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자”로서 역량개발 및 커뮤니티 형성, 시장정보 생산 및 제도개선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림 2. SVS 전략 체계도



SVS는 사회적 금융 시장 구축에 초점을 두고 사업 활동을 전개합니다. 첫째, 임팩트 투자사, 비영리 중개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에 투·용자 재원을 공급합니다(기금사업). 둘째, 역량 개발과 시장 정보 생산, 인식 제고 및 커뮤니티 구축 노력을 통해 중개기관, 투자자, 수요자, 정책 리더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도를 높이고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기반조성 사업).

1) 기금 사업: 적극적인 사회가치 투자자

기업 금융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투자·용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 체계를 강화하고 연결하며, 사회가치 중심 평가·관리 체계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 협동조합 조직 등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인내자본 공급을 촉진합니다.

- 소셜 임팩트 펀드 출자
- 사회연대경제 용자 프로그램 지원
- P2P 기반 시민펀딩 매칭 용자

프로젝트 금융

사회문제 해결 및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사회성과보 상사업(SIB), 시민 자산화 및 사회주택 건립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 사회목적 프로젝트를 위해 촉매 자본을 공급합니다.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투자
- 시민 자산화 프로젝트 투자: 통합돌봄 거점공간 조성, 도시재생지 주민소유 공간 마련
- 사회주택,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중개기관 투·용자

사회연대경제의 작동 원리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육성하려는 중개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보강(투자), 운전자금 용자

2) 기반조성 사업: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자

역량 개발

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운영, 지역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교육 과정:** 사회적 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사회적 금융 활용 역량 향상과정 운영
- **자문 활동:** 지자체 기금 설치 및 운영, 민간 지역기금 조성 및 활용 방안 자문

연구·출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규제를 비롯한 법률 제·개정 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사회적 금융 동향분석, 실태조사 등 정책 연구와 보고서 발행,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혁신모델의 지식전수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한 전문서적, 자료집, 번역서 등을 발간합니다.

- **정책 연구:**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서베이 및 시장 정보 생산
- **컨텐츠 개발:** 사회적 금융 관련 도서 발간, 사회적 금융 온라인 허브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사회적 투자자, 수요자 간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중개기관 간 일상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금융 관련 국제 협의체에 참여해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유관 주체 간 교류·협력을 지원합니다.

- **커뮤니티 형성:** 중개기관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 포럼’, 지역기금 네트워크 운영
- **교류행사 개최:** 사회적 금융 컨퍼런스, 써밋, 사회투자 IR 간담회, 자금조달 설명회 개최
- **국제교류·협력:** 국제 네트워크 참여, 해외 정책·사례 소개

통제 구조 및 보고 관행

1) 통제 구조

이사회

SVS는 도매기금 운영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포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문가, 출연기관, 공공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표 2. SVS 이사회

구분	이름	소속
이사장	하승창	-
상임이사	장지연	-
이사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김정희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양동수	소셜디벨로퍼그룹 더함 대표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에 따라 5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이사회 회의는 총 38회, 연 평균 5.4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

정관에 따라 1인의 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합니다.

표 3. SVS 감사

구분	이름	소속
감사	이상근	일신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원회

기금운용 및 기관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투자심의위원회:** 기금 투·융자 사업 심의기구로, 금융 및 사회연대경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합니다. 회의는 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로 개최합니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 **인사위원회:** 채용, 평가, 상벌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 **자문위원회:** 사업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상시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금융, 사회연대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2) 보고 관행

정기 보고

SVS는 내·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이 정기 보고를 시행해 왔습니다.

표 4. 정기 보고 현황

대상	빈도	방법	내용
이사회	연 2회	대면, 서면	사업, 예산, 결산
등록관청	연 1회	서면	사업, 예산, 결산
출연기관	연 1회	서면	주요성과, 결산
협력기관 및 일반	연 1회	연차 보고서 홈페이지 경영 공시	기관현황, 주요성과, 재무상태

제3자 검증 체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신성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 의무 이행

SVS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입과 지출현황, 재무 및 운영성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 연차보고서: 주요 사업 성과, 조직 및 이해관계자 현황, 결산
- 기부금 사용내역: 연간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명세
- 경영공시: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일반현황 및 기관운영
-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의견, 재무제표, 주식, 수입지출결산서

II. 임팩트 전략

01

목표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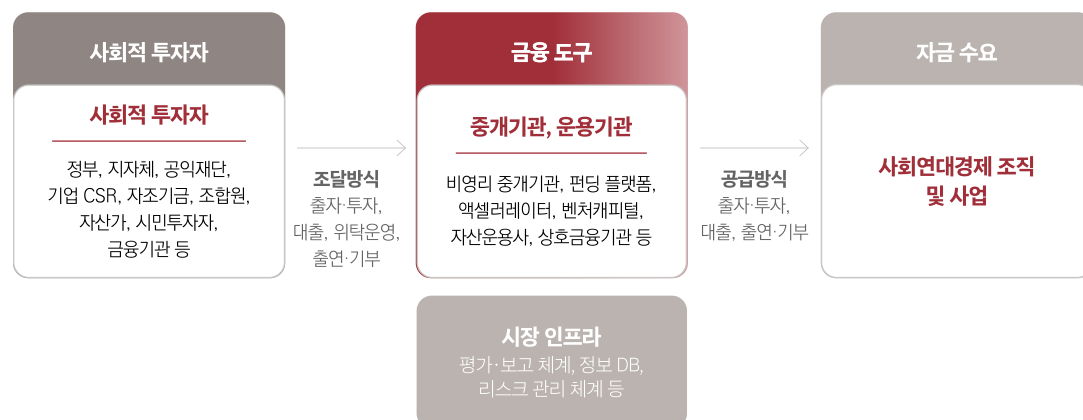
SVS는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어 가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임팩트 창출 역량을 성장시켜, 중대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평등 감소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사업으로 유입되는 투자를 증가시키고 중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자본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 계획은 시스템 접근에 기반해 추진됩니다. SVS는 사회적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투자자, 수요자, 중개기관, 인프라 등 4가지로 식별하고, 각 요소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1) 환경 진단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는 ①자금의 수요자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사업, ②자금의 공급자인 사회적 투자자, 그리고 ③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

그림 3.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성 요소



기관이며, 그 밖에 ④제도와 정보 플랫폼 등 시장 인프라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는 당시 사회적 금융을 태동 단계로 진단하고, 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생태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만기와 지원수단 등에서 수급 간 미스매치 발생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등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성과 평가 등 관련 시장 인프라 미비
- 사회적 금융을 복지제도로 혼동하거나 기대수익이 낮은 반면 위험은 높다는 인식 등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 저조

2) 추진 방향

SVS의 모든 사업은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도출된 전략 과제에 잘 정렬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표 5. 생태계 요소 진단 및 개선 방향

구분	진단	개선 방향
사회적 투자자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심 공급 - 민간 투자자 참여 미흡 - 자조기금 운영모델 미정립	- 공공 재원 운영 개선으로 활용성 제고 - 공익법인 등 민간 투자자 참여 지원 - 자조기금 조성 촉진 및 운영 지원
자금 수요자	- 정책자금 저리대출 중심 조달 관행 - 비수도권 협동조합의 낮은 금융접근성 - 임팩트 프로젝트 성공 사례 부족	- 임팩트 펀드 결성 촉진 및 활용도 제고 - 비수도권 협동조합 자금공급 비율 관리 - 준비된 임팩트 프로젝트 실현 지원
중개기관	- 제도기반 다양, 통일된 기준 부재 - 운용자금(AUM) 규모는 크지 않음 -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비수도권 부재)	- 중개기관 네트워크 구성, 교류협력 촉진 -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 우선 지원 - 비수도권 지역 중개기관 발굴·육성
인프라	- 사회적 가치 평가·관리 관행 미정립 - 중개기관 간 정보공유 인프라 부재	- 사회가치 관리관행 도입·확산 - 데이터 생산, 정책 연구 및 제안

과제 1. 사회적 투자자 개발

- 사회연대경제 금융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자체 기금 운영 개선 지원
- 사회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공공기관,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참여 촉진
- CSR-ESG경영 등 경제 행위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기업, 금융기관의 인식 제고

과제 2. 자금공급 사각지대 대응 및 양질의 자금수요 개발

-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공급 시 비수도권 할당 비중 요구 및 관리
- 자금공급 제약으로 추진되지 못한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임팩트 프로젝트 사례 창출
- 협동조합 자금조달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정책 제안

과제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발굴

- 지역 중개기관 발굴·육성, 상품구성 및 업무구조 세팅 지원, 융자재원 공급
- 교육 과정: 사회적 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 자문 활동: 지자체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자문

과제 4. 사회적 금융 인프라 조성

- 사회적 금융 관련 시장 데이터 생산,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공론장 마련
- 사회적 금융 관련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국내외 지식·정보·사례 공유

3) 변화 이론

SVS는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순환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잠재적인 투자자가 이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규명하고 완화시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자금의 흐름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합니다. 그 결과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소외된 이들과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주요 참여자와 시장 인프라 전반에 필요한 변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유입 확대를 추구합니다. 그 결과 취약계층과 서비스 사각지대 및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 임팩트를 확대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림 4.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매기금 운영 전략(변화 이론)

활동(Activities)	결과(Output)	성과(Outcome)	임팩트(Impact)
사회투자 도매자금을 조성해 공급하고 시장 구축 활동 전개 축매자본 공급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설립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 촉진 - 사회목적 프로젝트 자금 공급 촉진 시장 구축 -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및 참여 지원 - 시장 데이터 생산 및 제도 개선	사회적 금융 생태계 핵심 요소 개발 및 연계성 강화 - 사회적 투자자 다양화 및 참여 확대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성장 - 양질의 자금 수요 형성 - 정책 및 관행 변화, 인식과 이해도 증대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사업으로 유입되는 자금 투자 증가 중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자본 규모 확대 사회적 금융을 다루는 중개기관의 수와 다양성 증가 자원 혼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확대	중대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임팩트 확대 및 불평등 감소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임팩트 창출 역량 규모화 취약계층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효과 증대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01 빈곤회치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02

사업 모델

1)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운용

SVS는 2019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협동조합금융기관, 소비생협 등이 출연한 자금 281억원으로 도매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 공급→조직·사업 성장→자금 회수→자금공급 증가'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기관을 육성해 왔습니다. 성급한 규모 확대보다는 공급·회수 등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하며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 5.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2월)



과제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발굴

- 지역 중개기관 발굴·육성, 상품구성 및 업무구조 세팅 지원, 융자재원 공급
- 교육 과정: 사회적 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 자문 활동: 지자체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자문

과제 4. 사회적 금융 인프라 조성

- 사회적 금융 관련 시장 데이터 생산,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공론장 마련
- 사회적 금융 관련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국내외 지식·정보·사례 공유

3) 변화 이론

SVS는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순환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잠재적인 투자자가 이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규명하고 완화시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자금의 흐름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합니다. 그 결과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소외된 이들과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주요 참여자와 시장 인프라 전반에 필요한 변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유입 확대를 추구합니다. 그 결과 취약계층과 서비스 사각지대 및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 임팩트를 확대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림 4.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매기금 운영 전략(변화 이론)

활동(Activities)	결과(Output)	성과(Outcome)	임팩트(Impact)
사회투자 도매자금을 조성해 공급하고 시장 구축 활동 전개 축매자본 공급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설립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 촉진 - 사회목적 프로젝트 자금 공급 촉진 시장 구축 -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및 참여 지원 - 시장 데이터 생산 및 제도 개선	사회적 금융 생태계 핵심 요소 개발 및 연계성 강화 - 사회적 투자자 다양화 및 참여 확대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성장 - 양질의 자금 수요 형성 - 정책 및 관행 변화, 인식과 이해도 증대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사업으로 유입되는 자금 투자 증가 중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자본 규모 확대 사회적 금융을 다루는 중개기관의 수와 다양성 증가 자원 혼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확대	중대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임팩트 확대 및 불평등 감소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임팩트 창출 역량 규모화 취약계층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효과 증대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01 빈곤회지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02

사업 모델

1)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운용

SVS는 2019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협동조합금융기관, 소비생협 등이 출연한 자금 281억원으로 도매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 공급→조직·사업 성장→자금 회수→자금공급 증가'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기관을 육성해 왔습니다. 성급한 규모 확대보다는 공급·회수 등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하며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 5.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2월)



SVS는 도매자금 운용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관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융자, 보증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표 6. SVS 고유목적사업

재단 정관 제4조(사업) ①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지원사업 2. 사회적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지원사업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보육 및 투자, 융자 등의 지원사업 4.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 및 연구개발 5. 사회적 금융 발전을 위한 포럼, 학술대회, 강연, 교육 등 국내외 행사 및 홍보 6.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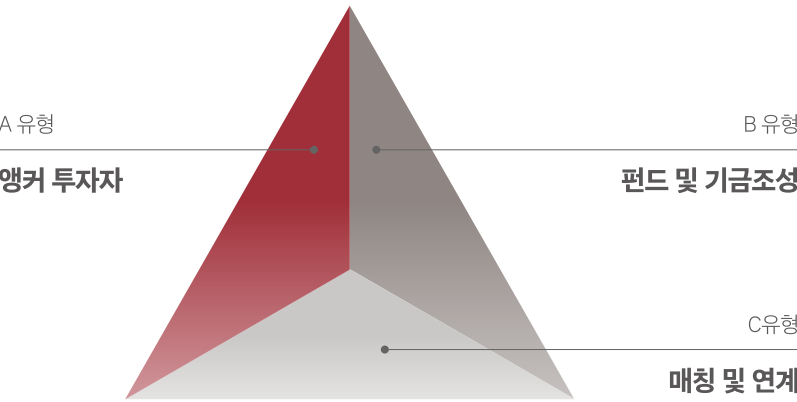
2) 중개기관 육성 전략

중개기관은 투자자와 사회연대경제 기업 사이에서 거래·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투자대상 발굴,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SVS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중개기관의 역량강화와 신규 중개기관의 출현을 위해 체계적인 중개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중개기관 자금공급 방식

중개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은 ①도매기금이 상품 구성을 주도하며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 ②중개기관이 주도해서 결성하려는 펀드·기금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참여하는 방식, ③기타 비정형적인 자원 혼합 프로그램에 매칭 및 연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림 6. 중개기관 자금공급 방식



- **A 유형(앵커투자):** 도매기금이 상품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와 방식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추동합니다.
- **B 유형(펀드·기금 결성 참여):** 중개기관이 구성하려는 상품에 지자체 기금, 자조 기금, 민간 자금 등 다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행 투자를 하거나 우호적인 조건으로 참여합니다.
- **C 유형(매칭 및 연계 투자):** 정형화된 펀드·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자원 혼합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매칭 투자 및 연계 투자를 시행합니다.

중개기관 지원 트랙

SVS는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중개기관에 도매자금을 공급하여 규모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이들과 협력해 자금공급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합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 시장이 태동기임을 고려해 금융과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 역량을 갖춘 다양한 주체들이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개기관 육성 트랙을 4가지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 **A Track(전문 중개기관 규모화):**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중개기관의 운용자산 확대 및 규모화를 지원하는 전략으로, 사회연대경제 맞춤형 융자 프로그램에 인내자본을 공급하거나, 소셜 임팩트 펀드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B Track(신규모델 창출, 협업구조 강화):**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사업의 자금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과 협력해 업종, 분야, 지역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합니다.
- **C Track(기성 금융기관 참여 유도):** 기성 금융기관의 사회연대경제 전용 상품 도입·확대, 임팩트 투자 참여 등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으로 상품과 사업을 개발합니다.
- **D Track(신규 중개기관 육성):** 지역, 업종, 부문별 신규 중개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적절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자금을 공급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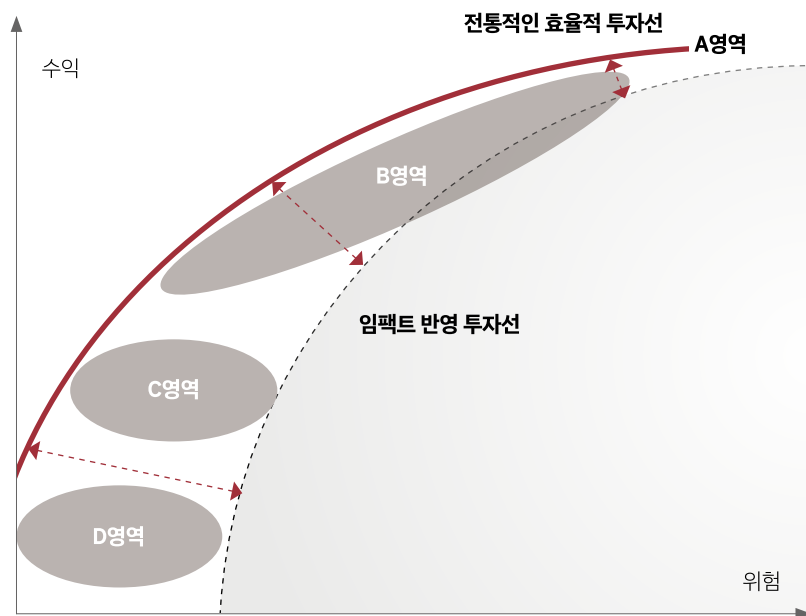
1) 임팩트-수익 스펙트럼

SVS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위험의 정도, 수익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자산 배분을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자산을 할당·관리합니다.

표 7.
임팩트-수익 목표에 따른
자산군 구분

자산군	특징	설명
A영역	시장 수익률 추구	-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면서 시장 수익률 추구 - 스케일업 단계 펀드 출자, 임팩트 프로젝트 투자
B영역	시장 대비 낮은 수익률	- A영역과 동일한 수익률을 추구하나, 우선순실총당 등 리스크를 수용하여 사회적 투자자 유인 -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후순위, 혹은 장기 채권을 수용하며 사회적 투자자 유인
C영역	조달금리 추구	-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초과수익을 목표하지 않고 투자 - 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시장조성자 역할 수행
D영역	조달금리 대비 낮은 수익률 감수	- 사회적 가치 창출이 명확하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아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영역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설립 출자금 등 회수시점이 불분명한 지분 투자 등

그림 7. SVS의 임팩트 반영 투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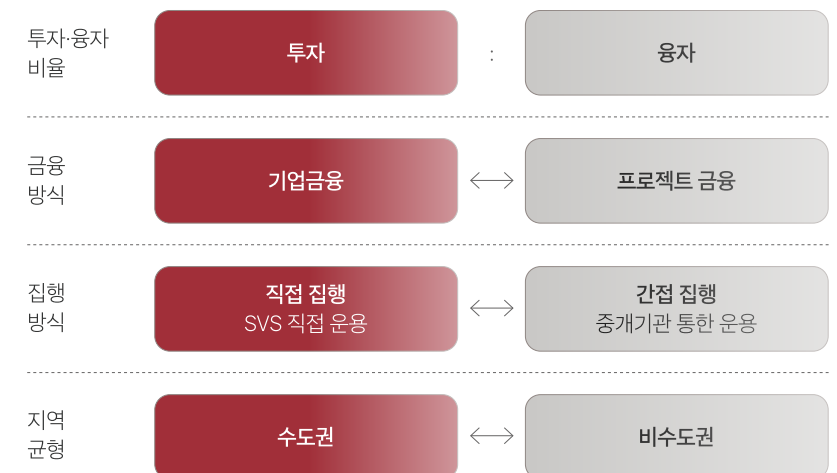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수익률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체 역량 강화, 정보 비대칭 해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 금융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팩트 반영 투자선의 위치는 점차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포트폴리오 균형 전략

SVS는 임팩트-수익 스펙트럼과 함께 방식, 지역, 구조 차원에서도 균형 잡힌 운용을 추구합니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중개기관 유형별 분포 현황을 고려해 자금 공급 방식에 있어 투자와 용자를 균등하게 운용합니다. 규모 있는 임팩트 창출 가능성이 있으나 적합한 중개기관이 없는 분야에는 자금을 직접 집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임팩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실행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낮은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 중개기관과 함께 비수도권 자금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림 8. 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용



Ⅲ. 프로세스와 구조

01

사업 프로세스

SVS의 기금 투·용자는 발굴, 투자의사결정, 사후관리·모니터링, 회수의 4단계로 운영됩니다. 각 단계에서 재무적 리스크 관리와 임팩트 관리가 병행됩니다.

발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공모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적 금융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아 비수도권 지역, 협동조합 등 제도권 금융이 닿지 않는 영역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적합한 중개기관이 없는 분야에는 직접 투·용자를 검토합니다.

투자의사결정

투·용자 의사결정은 외부 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억원 이하 간접 투·용자, 1억원 이하 직접 투·용자 등 소액金は 내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실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심의에서 검토하는 주요 의사결정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및 내규 부합성(사회적 가치 지향성 확인)
- 사업 타당성 및 중개기관 역량
- IMP 기반 임팩트 사전 평가(목적, 대상, 규모, 기여, 리스크)
- 리스크 평가(임팩트, 평판, 신용, 중개기관, 운영 리스크 등)
- 한도 관리 항목 11개 준수 여부

사후관리·모니터링

집행 후에는 연간 2회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매년 1분기에 피투자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소셜 임팩트 펀드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주 목적 투자비율 이행 여부, 임팩트 KPI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 프로그램은 비수도권 비율, 연체율 등을 함께 모니터링합니다.

재무적 성과는 매월 자금수급 현황 점검을 통해 약정·집행, 회수, 투·용자 수익을 확인하고 투·용자 자산의 건전성을 관리합니다. 소셜임팩트펀드 출자는 국내 벤처투자펀드의 유한책임투자자(LP)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보고(3월), 반기보고(7~8월)로 모니터링되며, 매출·부채비율·기업가치배수(MOIC) 등이 주요 점검 지표로 활용됩니다. 사회적 성과는 중개기관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 효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로 구분하여 연 1회 연차보고서에 종합 반영합니다. 중개기관에는 투·용자 약정에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출연기관에는 연 1회 사업성과보고를 통해 차년도 사업 계획에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균형 전략의 이행 여부도 동일한 주기로 점검됩니다. SVS는 자산군, 공급방식, 상품유형, 지역범위별 할당 비율을 매년 회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목표 비율을 조정하여 반영함으로써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이 매년 갱신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회수 관리

SVS는 투자 목적의 훼손 없이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수 시점이 불분명한 D영역 투·용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회수를 관리하며, 부실 발생 시 이사회에 보고하여 후속 정책 방향에 반영합니다.

SVS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회복탄력성과 성장 잠재력이 그 자체로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회수 단계에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용자 설계 단계에서는 상환순위 조정(후순위 수용), 시장수익률 대비 낮은 목표수익률 수용, 중개기관 재대출에 대한 대손위험 일부 분담 등 ‘유연자본화 효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가 큰 프로그램일수록 회수 조건을 유연하게 설계합니다.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실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먼저 가려낸 뒤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등 정상화 방안을 우선 검토합니다.

02

임팩트 관리 체계

1) IMP 기반 임팩트 관리 체계 도입

SVS는 2020년부터 국제 임팩트 관리 방법론인 IMP(Impact Management Platform)를 도입하여 투자의사결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IMP는 임팩트를 ①사회적 가치 목적(What) ②임팩트 대상(Who) ③임팩트 규모·정도(How much) ④생태계 기여(Contribution) ⑤임팩트 비발생 리스크(Risk)의 5가지 차원으로 평가합니다.

SVS는 도매기금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두 층위로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 **피투자기업 및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 피투자기업과 중개기관이 설정한 임팩트 지표에 따라 집계하고 관리합니다.
-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 효과** - IMP가 제시한 임팩트 투자자의 고유한 기여 전략에 따라 도매기금이 창출할 수 있는 고유한 성과를 진단하고 관리합니다.

2) 심사 단계의 임팩트 중심 접근

투·융자 심사 시 IMP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임팩트 지향성과 생태계 기여 효과를 사전에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 결과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반영되고, 투·융자 후 모니터링 항목으로도 연결됩니다.

SVS는 IMP가 제시한 임팩트 투자의 고유한 사회가치 창출 효과 4가지를 도매기금 모델에 적합하게 해석해 기준을 마련해 두고, 프로그램 설계 및 투자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해 공급 방식을 결정합니다.

- **신호 효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임팩트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이를 투자 대상과 시장 전반에 명시적으로 알리는 효과. SVS가 특정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분야가 사회적 금융의 대상으로 주목받을 만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
- **개입 효과:** 단순한 도매자금 공급자에 머물지 않고 중개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효과. 신생 중개기관의 경우 함께 상품을 설계하고, 심사·현장실사 역량 지원, 전문 인력 교육, 임팩트 보고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개기관이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성장촉진 효과:** 기존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거나 과소공급되었던 시장·분야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척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공급되는 자본의 규모·비용·조건을 변화시키고 그렇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임팩트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
- **유연자본화 효과:** 성장촉진 효과의 하위 전략으로, 유사한 위험·유동성·조건에 일반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을 수용하거나 후순위·비유동성 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과 다양한 사회적 투자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효과. 제도권 금융의 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금융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촉매 역할

SVS의 기여 전략은 재무적 방식과 비재무적 방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 **재무적 기여:** 후순위 출자 및 상환순위 조정, 시장수익률 대비 낮은 목표수익률 수용, 무이자·저리 자금공급, 중개기관 대손위험 분담, 중개기관 설립·운전자금 투·융자

- **비재무적 기여:** 신생 중개기관 상품 설계 공동 참여, 심사·현장실사 역량 지원, 임팩트 보고 체계 구축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사회가치 평가·관리 방법론 전수

이러한 구분은 IMP가 제시하는 4대 기여효과 중 '개입 효과'와 '유연자본화 효과'가 실제로는 각각 비재무적·재무적 수단을 통해 구현됨을 보여줍니다.

BOX 1. 사례 신나는조합 사회연대경제기업 융자 프로그램 지원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하는 상품을 구성하고 대상에 특화된 심사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개선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의무 지원비율을 50%로 설정하여 자금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자의 일부를 대손충당 적립금으로 유보하고, 충당금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SVS와 신나는조합이 분담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BOX 2. 사례 ㈜D3주빌리파트너스 결성 임팩트펀드 후순위 출자

SVS는 한국모태펀드가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분야 투자조합 중 임팩트 분야에 전문 투자회사가 결성하는 펀드에 선별적으로 출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펀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자금과 매칭되는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출자에 대한 손실을 SVS가 우선적으로 총당하는 후순위 출자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회적 투자자를 개발하는 유연자본화 효과 창출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3) 모니터링 단계의 임팩트 관리

자금 집행 후에는 각 사업별 고유한 임팩트 KPI를 추적하고, 중개기관별로 피투자기업의 매출·고용·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재무·비재무 지표를 매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합니다. 중개기관과의 투·융자 계약에는 사회가치성과 보고 의무가 명시됩니다.

표 8.
사회목적 프로젝트 임팩트
성과지표 사례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연도	공금액	주요 임팩트 성과지표
서울시 청년실업해소 SIB 투자	2019년	1,100	사업 참여자 정규직 1년 이상 취업자수
부여군 치매예방 SIB 투자	2021년	100	사업 참여자 경도인지장애 이환율
서울시 불안정 노동자단체 대출	2020년	1,550	대출 수혜자수, 노동공제 참여자 증가
중소기업 공장지붕 태양광	2020년	490	태양광 발전용량, 탄소배출 감소량
안산·전주의료사협 출자	2020년	134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량, 조합원 증가
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 보증금 반환 보증	2021년	300	보증금 신속반환 수혜자수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	2023년	500	브릿지 자금 금리 절감액

리스크 관리 방안

리스크 관리 항목

SVS는 일반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신용·시장·금리·운용 리스크에 더해, 사회적 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임팩트 리스크·평판 리스크·중개기관 리스크를 추가로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사회적 금융 도매자금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 9.
SVS에서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항목

- ① **평판 리스크:** 사업 관련 위법행위, 규제위반, 사회환경 세이프가드 미준수, 부적절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 등으로 재단의 사회적 명성을 저하시킬 가능성
- ② **임팩트 리스크:**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성과 창출 부족,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
- ③ **사업운영 리스크:** 자원 또는 지원대상 발굴 부족으로 사업지연 및 적시집행이 어렵거나, 유동성 악화 및 시장환경 급변에 대처하지 못할 리스크
- ④ **중개기관 리스크:**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중개기관의 재무안정성 악화, 핵심인력 이탈, 역량 저하 등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 ⑤ **신용 리스크:**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원한 피투자기업 및 프로젝트의 부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가능성
- ⑥ **시장 리스크:**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대기 유희자금에 대해 금리, 주가, 환율 및 상품가격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가능성
- ⑦ **금리 리스크:** 금리가 재단의 자산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순자산가치의 하락 또는 순이자수입의 감소)
- ⑧ **운용 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업무 프로세스, 인력, 시스템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말하며, 법규 리스크 포함

3단계 방어 라인

SVS는 금융권의 통상적인 3단계 리스크관리 의사결정 체계를 준용해 리스크관리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1단계(현업 관리):**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각 부서는 사업활동 수행 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중개기관, 피투자기업 및 사업에 대한 실사 및 심사를 통해 1차 모니터링 실시
- **2단계(통합 리스크 관리):** 도매자금의 경영전반과 사업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경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를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 수립. 투자 의사결정 시 각종 준수사항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사전 점검
- **3단계(감사·준법감시):** 감사는 1단계, 2단계 리스크 관리 수행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리스크 관리 체계와 기금사업 간 정합성 확보

SVS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해 재무적 리스크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사업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차년도 사업에 적용합니다.

투자의사결정 단계에서 재단의 리스크관리 체계에 기반해 다음과 같이 리스크 및 한도관리 항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투·융자 지원 여부
- 개별 투·융자 익스포저 한도 초과여부
- 개별 지분 직접투자 한도 초과여부
- 개별 집합투자기구 등 총약정액 투자한도 초과여부
- 후순위 리스크 부담제공 한도초과 여부
- 간접대출 대손부담 원칙 해당여부
- 직접투·융자 시설자금용도, 투·융자한도

위원회별 임팩트 관점 역할

- **투자심의위원회:** 임팩트 지향성을 사업타당성, 리스크리뷰 의견서와 함께 통합 심의
- **리스크관리위원회:** 임팩트리스크(6개 유형) 포함, 전사적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제시

부정적 임팩트 관리

SVS는 IMP가 제시한 임팩트 리스크 항목을 참고해 사업에 맞는 6가지 임팩트 리스크 유형을 정의하고, 투자심사 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사전 점검합니다. 이 틀은 이후 정기 모니터링, 현장실사, 중개기관 교육으로 이어지는 실무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표 10.
임팩트 리스크 점검 항목

- ① **측정 가능성 리스크:** 사전에 기대하는 임팩트가 일어나는지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
- ② **임팩트 지속성 리스크:** 긍정적 임팩트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
- ③ **실행 리스크:** 계획되었던 임팩트 창출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 ④ **외부 환경 리스크:** 외부 요인이 임팩트 창출을 방해할 가능성
- ⑤ **정합성 리스크:** 피투자기업 또는 사업에 임팩트 창출모델이 정착되지 않거나 강제되지 않을 가능성
- ⑥ **이해관계자 배제 리스크:** 해당 임팩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배제될 가능성

IV. 포트폴리오 현황

01

총괄 현황

1) 개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SVS는 모두 55개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에 232억원을 할당했습니다. 이 자금은 정부 자금, 지자체 기금, 공익재단 및 금융기관 자금, 민간 자조기금 등과 결합해 총 1,885억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 프로그램 수: 55개
- 승수 효과: 8.1배
- SVS 약정액: 232억원(집행액: 228억원)
- 평균 만기: 6.6년
- 총 결성규모: 1,885억원(결성액: 1,745억원)
- 평균 수익률: 4.3%

2) 자산군별 할당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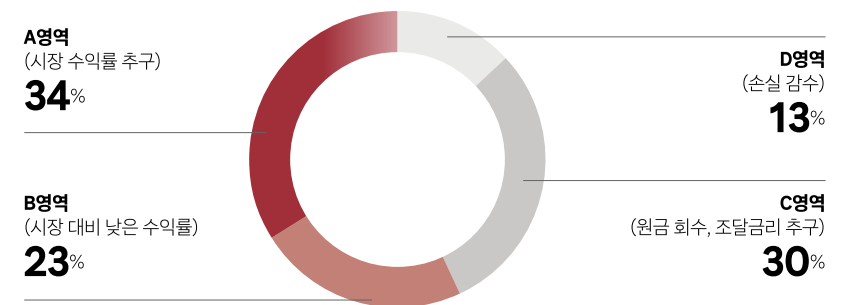
SVS가 투입한 자금은 임팩트-수익 목표에 따라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자산군으로 관리됩니다. 영역별 할당 비율은 A영역(시장 수익률 추구) 34.0%, B영역(시장 대비 낮은 수익률) 22.8%, C영역(조달 금리) 30.2%, D영역(손실 감수) 13.0%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2/3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는 자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자산군 구분은 절대적인 수익률의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시장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표 11. 자산군별 할당 내역

자산군	프로그램 수	할당액	할당액 비율	평균 수익률
A영역(시장 수익률 추구)	20개	78.9억원	34.0%	6.6%
B영역(시장 대비 낮은 수익률)	9개	52.9억원	22.8%	7.2%
C영역(원금 회수, 조달금리 추구)	19개	70.0억원	30.2%	0.1%
D영역(손실 감수)	7개	30.2억원	13.0%	0.5%
계	55개	232.0억원	100.0%	

그림 9. 자산군별 할당액 비율



BOX 3. 사례

A영역: 임팩트 피크닉 투자조합 3호 (기후펀드) 출자 ((주)소풍벤처스)

SVS는 기후테크 관련 사회연대경제 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소풍벤처스가 운영하는 임팩트 피크닉 투자조합3호 펀드에 출자하였습니다. 2024년 9월 결성된 이 펀드는 SVS와 한국모태펀드 외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총 43억원의 펀드를 결성함으로써 기후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개 분야인 에너지, 순환경제, 농식품 분야에 최적화된 기후테크 소셜벤처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여 기후환경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펀드입니다. ㈜소풍벤처스는 단계별의 사결정 구조에 기반한 평균 2.7% 수준의 딜 통과율을 유지하고 투자본부와 관리본부의 펀드관리를 이원화함으로써 다중 투자 분석과 관리체계를 통해 운영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보유한 투자사라는 점에서 기후환경 분야의 그린워싱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OX 5. 사례

C영역: 전북도 사회적경제기금 매칭 대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21~’23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수행기관 공모에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SVS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24년부터는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단독으로 선정되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VS는 지역 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지자체기금 운영기관 공모에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대표 수행기관인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지역 중개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 부담금을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초기 단계 중개기관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발굴·심사 및 사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사회적가치 평가·관리 방법론 전수 등을 통해 지역 중개기관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BOX 4. 사례

B영역: 지역자산화 P2P 시민펀딩 매칭 대출 (건맥1897협동조합)

지역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안적인 소유 방식인 시민자산화는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및 농어촌지역 공동화 등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VS는 시민자산화 사업 매칭 대출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사회적 인프라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P2P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플러스와 함께 ‘시민참여 지역자산화 매칭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자산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역 사회혁신 활동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2.3%)로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목표 건해산물거리 활성화를 위해 주민·상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건맥1897협동조합’은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기관 중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BOX 6. 사례

D영역: 사회연대경제 코로나19 운전자금 긴급대출 (신나는조합, 재난연대기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정부 지원체계 안에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SVS는 중개기관 등의 참여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긴급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위기기업의 생존력과 회복 의지를 높이고자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가피한 손실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상환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애초에 유연하게 설계되었고, 신나는조합을 통해 2.3억원의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년 후 공급액의 85.5%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자금이 상환되었습니다.

3) 프로그램 구성

SVS는 포트폴리오 균형 전략에 따라 공급 방식(투자, 융자), 상품 유형(기업금융, 프로젝트금융 등), 지역 범위(전국, 수도권, 비수도권)를 기준으로 자산 할당 비율을 모니터링합니다.

공급 방식

최종 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 방식을 기준으로, 수익과 손실을 비례적으로 나누고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 유형에는 52.5%의 자산이, 고정 이자를 수취하는 ‘융자’ 유형에는 47.5%의 자산이 할당되었습니다.

표 12. 공급 방식별 비율

구분	프로그램 수	할당액	할당액 비율	평균 만기	평균 수익률
투자	23개	122억원	52.5%	7.4년	7.0%
융자	32개	110억원	47.5%	5.6년	0.3%
계	55개	232억원	100.0%		

상품 유형

기업의 창업자금, 성장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공급되는 ‘기업금융’ 상품에 전체 자산의 71.1%가 할당되었고, 사업 단위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별도 구조를 만들어 자금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금융’ 상품에 28.2%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0.7%의 자금은 중개기관을 위한 설립자금, 운전자금, 유지자본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표 13. 상품 유형별 비율

구분	프로그램 수	할당액	할당액 비율	평균 만기	평균 수익률
기업 금융	34개	165억원	71.1%	7.4년	4.8%
프로젝트 금융	18개	65억원	28.2%	4.4년	2.3%
중개기관 투·융자	3개	2억원	0.7%	7.1년	4.5%
계	55개	232억원	100.0%		

지역 범위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범위로 자금을 공급하는 14개 프로그램에 전체 자산의 43.7%가 할당되었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상 17가지 프로그램에 25.7%의 자금이 할당되었습니다. 30.6%의 자금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1개 프로그램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비수도권에 50~7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한 3개 프로그램에 할당되었습니다.

4)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SVS 자금이 투입된 55개 프로그램 중 44개 프로그램은 중개기관을 통해 집행되거나, P2P 매칭 융자 등 중개기관 협력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협력 투·융자 방식으로 자금의 83.0%가 집행되었습니다.

표 14. 중개기관을 통한 공급 비율

구분	프로그램 수	할당액	할당액 비율	평균 만기	평균 수익률
간접 투·융자	39개	188.2억원	81.1%	6.9년	4.8%
협력 투·융자	5개	4.5억원	1.9%	4.0년	2.3%
직접 투·융자	11개	39.3억원	17.0%	5.2년	1.5%
계	55개	232.0억원	100.0%		

중개기관 파트너십 현황

2026년 6월 현재 SVS는 25개 기관과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를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금 공급을 위해 임팩트 투자를 실행하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 및 자산운용사와 협력합니다. 또한, 비영리 중개기관과 협력해 사각지대 자금공급 및 현장 밀착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유형	중개기관
집합투자기구 운용기관	창업기획자	(주)임팩트스퀘어, (주)엔와이소셜컴퍼니, (재)큐네스티, (주)블루포인트파트너스
	벤처투자회사	(주)디쓰리주빌리파트너스, (주)소풍벤처스, (주)티비디, (주)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주)에이치지아이이니셔티브
	자산운용사	(주)아크임팩트자산운용
비영리 중개기관	전국 기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재)밴드,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지역 기반	(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재)대구사회가치금융,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경기제일신탁
	업종 특화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신금융 전문기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주)오마이컴퍼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주)비플러스 SIB 운영기관 팬임팩트코리아(유)

* (주)에이치지아이이니셔티브는 2026년에 협력사업이 시작되어 이 보고서의 실적 현황에는 표현되지 않음
** (주)오마이컴퍼니는 코로나19 기간 자금조달 컨설팅 협력기관으로 투·융자 실적 현황에는 표현되지 않음

그림 10. 투·융자 유형별 할당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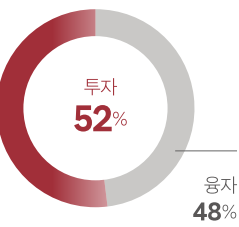


그림 11. 상품 유형별 할당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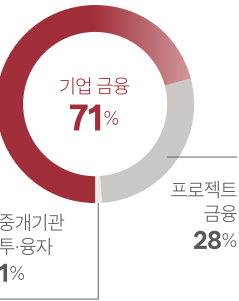


그림 12. 중개기관을 통한 공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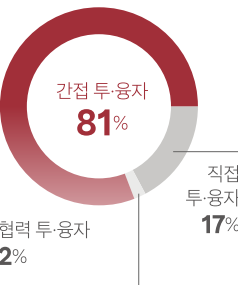


표 15. 중개기관 파트너십 현황

중개기관 자금공급 방식

중개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은 ①SVS가 앵커 투자자로서 투·융자 프로그램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와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A 유형), ②다른 앵커 투자자가 있는 프로그램에 민간 자금으로 참여하는 경우(B 유형), 그리고 ③다양한 방식의 자원 혼합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매칭·연계 투자를 시행하는 경우(C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SVS가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협력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 44개 프로그램 중 앵커 투자자로 자금을 공급한 A 유형의 프로그램은 11개이고, 펀드·기금 결성에 참여한 B 유형의 프로그램은 22개입니다. 매칭·연계 투자 방식의 C 유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11개입니다. 유형별 자금 할당 비율은 각각 A 유형 42.5%, B 유형 48.9%, C 유형 8.6%입니다.

앵커 투자자로 자금을 공급한 경우 총 결성액에서 SVS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7.3%입니다. 다른 앵커 투자자가 있는 프로그램에 민간 자금으로 참여한 경우 SVS 자금의 기여율은 평균 5.6%입니다.

표 16. 중개기관 자금공급 유형별 할당 비율

구분	할당비율	승수효과	SVS 비율	프로그램 수
A 유형 (앵커 투자)	42.5%	1.3배	77.3%	투자 1개, 융자 10개
B 유형 (펀드·기금 결성 참여)	48.9%	18.0배	5.6%	투자 17개, 융자 5개
C 유형 (매칭 및 연계 투자)	8.6%	1.4배	71.4%	융자 11개

중개기관 지원 트랙

SVS는 자금 공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중개기관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A 트랙에 전체 자금의 69.2%를 할당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지원 역량과 자원을 갖춘 지역 및 업종 단위 협의체를 중개기관으로 발굴·육성하는 B 트랙에 자금의 10.8%를 할당하였습니다.

A 트랙의 기관별 평균 공급액이 5.3억원인데 반해, B 트랙의 기관별 평균 공급액은 1.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의 자금을 활용해 해당 커뮤니티 안에서 중개기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북, 제주, 부산, 강원 등 지역 중개기관과 사회주택, 시민발전협동조합 등 업종 특화 중개기관이 B 트랙을 통해 발굴·육성되었습니다.

C 트랙은 기술창업 지원 역량을 갖춘 투자회사, 또는 지역 밀착 자금공급 역량을 갖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사회적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과정으로 (주)블루포인트파트너스, (주)티비티,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주), 그리고 경기제일신협이 이 트랙을 통해 협력한 기관들입니다.

D 트랙에 해당하는 대구, 경남 지역 중개기관은 SVS가 설립 단계부터 관여해 지원한 경우입니다.

표 17. 중개기관 지원 트랙 현황

구분	중개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할당액 비율	평균 공급액
A 트랙 (전문 중개기관 규모화)	11개 기관	25개	69.2%	5.3억원
B 트랙 (협업·신규모델 창출)	6개 기관	13개	10.8%	1.6억원
C 트랙 (기성 금융기관 참여)	4개 기관	4개	17.6%	8.5억원
D 트랙 (신규 중개기관 육성)	2개 기관	2개	2.3%	2.3억원
계	23개 기관	44개	100.0%	4.4억원

5) 회수 현황

2025년말 기준으로 SVS에서 자금을 투입한 55개 프로그램 가운데 30개 프로그램에서 회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수된 원금은 85.5억원으로 총 납입액 227.8억원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원금과 함께 회수된 수익금은 6.2억원입니다.

회수 개시: 30개 프로그램

- 회수원금: 85.5억원(37.5%)
- 회수수익: 6.2억원

2025년말 기준으로 투입된 자금이 모두 회수되어 종료된 프로그램은 11개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투입된 자금은 48.1억원이고 회수된 원금은 47.6억원입니다. 수익액은 3.2억원이고 손실 확정액은 0.5억원입니다.

윤리적 회수 관리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포용적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이들 기업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는 공익을 위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금

융의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일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점과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과 차이

제도권 금융기관은 예상손실을 반영한 금리, 담보, 신용등급 체계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점에서 회수전략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에는 이와 별도로 두 가지 전략적 고려가 추가됩니다. 첫째, 대출 대상이 돌봄·사회주택·의료·지역문화·일자리 등 영역에서 의미 있는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인 경우, 회수는 상환 관리보다 사회적 가

치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둘째, 투자 포트폴리오에 속한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업모델 변경(피보팅)이 흔히 발생하므로, 기업의 폐업으로 그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생태계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질서있고 의미 있는 엑시트(Exit)’를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SVS의 윤리적 회수 전략

SVS는 중개기관들이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협력, 경영 컨설팅 연계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활용해 피투자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SVS는 투자 심사와 사후관리 전 과정에 사회적 금융 고유의 윤리적 회수 관점을 반영합니다.

(유연자본화 효과 고려) 투자 설계 및 심사 단계에서 프로그램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회수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유연 자본화 효과’를 반영합니다. 펀드 출자 시 상환순위 조정(후순위 수용), 시장수익률 대비 낮은 목표수익률 수용, 중개기관 육성효과를 고려한 무이자 자금공급, 중개기관 대손위험의 일방적 부담 완화, 상환기일 및 원리금 조정 등이 대표적인 적용 방식입니다.

회수 후 임팩트 추적

투·융자 회수 이후 해당 자금공급이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중개기관이 중장기적으로 갖춰야 할 체계입니다. SVS는 투·융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그램이 거

룬 재무적 성과와 함께 기여한 사회적 가치를 최종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중개기관을 통해 공급된 자금의 회수 후 임팩트 추적체계 정립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실채권 관리 원칙) 미회수 원리금이 3개월 이상 경과하면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며, 만기 후 6개월 이상 미회수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실무위원회가 사회적 성과 창출 정도와 생태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등 채권관리 방안을 검토합니다. 중개기관을 통한 투·융자의 경우 별도 약정으로 대손 부담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기계적인 채권회수 절차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회수 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관리 과정에서는 중개기관 및 피투자기업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우선 가려내며, 이를 통해 상환 의지가 있는 정상화 가능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차등적으로 대응합니다.

표 18.
임팩트 펀드 출자 내역
(단위: 억원)

시리즈 A 단계(4개 펀드)

초기 검증을 마친 기업이 본격적인 스케일업에 진입하는 단계로, 대형 벤처투자조합·사모투자신탁에 출자해 다수 포트폴리오사에 분산 투자하는 간접 구조입니다. 결성규모 250~330억원(평균 287억원)으로 가장 크고, SVS 출자비율은 1.2~9.6%(평균 4.6%)입니다. 모두 전국 단위 펀드이며, 다만 도시재생활성화 펀드처럼 정책목적상 특정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Pre-시리즈 A 단계(6개 펀드)

초기 검증을 마친 기업의 다음 단계 자금을 공급하는 중형 펀드 구간입니다. 결성규모 42억~100억원(평균 58억원)으로 시리즈 A보다 작지만, SVS 출자비율은 평균 10.9%로 오히려 높아져 SVS가 단순 LP를 넘어 전략적인 출자자 역할을 맡는 비중이 커집니다. 전국형 펀드(5개)와 지역 특화형 펀드(1개)가 혼재합니다.

씨드 단계(6개 펀드)

가장 초기 단계의 소셜벤처·지역가치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소형 펀드입니다. 결성규모 17억~38억원(평균 27억원)으로 가장 작고, 강원·경남·제주 등 지역별 특화펀드 비중이 높습니다.

사업명	결성년도	출자액	결성규모	비고
시리즈 A 단계				
디쓰리임팩트벤처투자조합 제2호	2019	20.0	308.5	전국형
아크 임팩트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2020	25.0	260.0	전국형
티비티 오픈노베이션 투자조합	2020	5.0	330.0	전국형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	2021	3.0	250.0	전국형, 도시재생
Pre-시리즈 A 단계				
블루포인트사회혁신기술 창업벤처전문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020	25.0	45.0	전국형
임팩트스퀘어 사회적기업 디딤돌 벤처투자조합	2020	9.0	58.0	전국형, 사회적기업
경북청년애꿈 ESG 벤처투자조합	2022	1.0	50.0	지역형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6호 벤처투자조합	2023	1.0	100.0	전국형, 사회적기업
임팩트 피크닉 투자조합 3호	2024	1.0	42.3	전국형, 환경분야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	2025	1.0	55.0	전국형
씨드 단계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2호 개인투자조합	2020	4.0	20.0	전국형
소셜벤처 피크닉 1호 투자조합	2020	2.5	38.0	전국형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2020	2.0	22.0	지역형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	2021	1.0	33.4	지역형
제주 초기스타트업 육성 펀드	2024	1.0	35.0	지역형
한사투-Simsan 글로벌 임팩트 투자조합 1호	2025	1.0	17.0	전국형

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1) 임팩트 펀드 출자 -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체계는 소셜 벤처를 주 대상으로 하는 임팩트 펀드 중심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SVS는 지난 7년 간 임팩트 전문 벤처캐피털과 액셀레이터를 중심으로 16개 펀드에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세 단계는 펀드 결성규모가 클수록 더 나중(검증된) 단계, 작을수록 더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성규모 평균이 시리즈 A(287억) → Pre-시리즈 A(58억) → 씨드(27억) 순으로 약 10배 차이가 납니다.

2)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인내자본 공급

사회연대경제 기업·조직은 담보력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기준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자금이나 일반 은행권 대출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SVS는 지난 7년 간 14개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중개기관에 인내자본 성격의 융자 재원을 직접 또는 매칭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영역은 SVS가 소요 재원을 전액 공급하는 일반 융자 프로그램과, 지자체·민간기금이 조성한 자금에 SVS가 매칭 융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인내자본 공급은 초기에 전국 단위 일반 융자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이후 지역 기반 지자체 기금 및 민간기금과 협업을 통해 지역 중개기관 육성을 병행하며 다수의 소규모 사업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반 융자 프로그램(4개 사업)

SVS가 융자 재원을 전액 공급한 프로그램으로, 신나는조합, 재단법인 밴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주로 전국 단위 중개기관과 협력했습니다. 각 사업의 규모는 14~15억원이고, SVS가 공급한 자금을 활용해 중개기관이 개별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의 50% 이상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집행되었습니다.

지자체 기금 매칭 융자(5개 사업)

지자체가 조성한 사회적경제기금에 SVS가 매칭 융자하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기금이 중개기관을 통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개별 사업 결성규모는 5억~17억원이고, SVS 출자비율은 10% 내외입니다.

민간기금 매칭 융자(5개 사업)

사회연대경제 지역 네트워크 등 민간 부문이 조성한 자조기금에 SVS가 매칭 융자하는 구조로, 대구, 제주, 부산,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 고르게 분포합니다. 개별 사업규모는 2억원 내외로 지자체 기금 매칭 융자보다 작고, SVS 매칭 비율이 모두 50% 이상으로 높습니다. 자조 기반 민간기금 형성 초기 단계에서 SVS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표 19.
융자 프로그램 지원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년도	공급액	사업규모	비고
융자 프로그램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2020	15.0	15.0	전국형, 지역균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공제기금	2020	15.0	15.0	전국형, 지역균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자활기업	2020	14.0	14.0	전국형, 지역균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경남	2020	2.5	2.5	지역형

사업명	사업년도	공급액	사업규모	비고
지자체 기금 매칭 융자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매칭 융자(4회)	21~24	3.8	32.8	지역형
전주 사회적경제기금 매칭 융자	2023	1.0	10.8	지역형
민간기금 매칭 융자				
사회적경제 민간기금 매칭 융자 – 평택	2022	1.0	2.0	지역형
사회적경제 민간기금 매칭 융자 – 대구	2022	2.0	2.4	지역형
사회적경제 민간기금 매칭 융자 – 제주	2023	1.5	2.0	지역형
사회적경제 민간기금 매칭 융자 – 부산	2024	1.0	2.0	지역형
사회적경제 민간기금 매칭 융자 – 강원	2025	1.0	1.2	지역형

3) 프로젝트 금융 – 사회목적 프로젝트 추진자금 공급

프로젝트 금융은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된 개별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펀드 출자나 융자 프로그램과 달리 사업별로 구조와 위험·수익 특성이 상이합니다. SVS는 지난 7년 간 16개 프로젝트에 투·융자해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재생에너지, 사회주택, 지역자산화 등의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각 영역은 정책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SIB는 공공 성과지불자가 존재하는 성과보상형 구조이고, 지역혁신·시민자산화와 사회주택은 부동산·인프라 성격의 자금이 필요한 영역이며, 재생에너지는 수익모델이 비교적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 성격을 띠니다. 영역별로 SVS의 역할도 직접투자자, 매칭출자자, 후순위 보증제공자 등으로 달라집니다.

SIB 분야(2개 사업)

서울시 청년 실업 해소 사업과 부여군 치매 예방 사업으로, 팬임팩트코리아가 운영기관을 맡았고 SVS는 민간 투자자금 결성 초기에 선행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목적인 사회성과를 창출하였고, 그에 따라 자금 회수가 완료되어 성과지표 달성에 따른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지역혁신 & 시민자산화 분야(6개 사업)

지역 내 의료복지·돌봄 거점공간이나 시민편당 기반 자산화 사업에 출자·매칭 융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안산·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출자부터 목포·제주·마포의 지역 자산화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편당 매칭 융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사업당 SVS 공급액은 0.4억~1.2억원으로 다른 영역보다 소규모이지만,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 자금 활용을 위해 자기자본을 보강하는 등 촉매자본의 성격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2개 사업)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사업에 투자하고, 에너지협동조합 자립지원 매칭 융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공장지붕 태양광사업은 총사업비 142억원 중 SVS가 4.9억원을 투자하였고, 현재는 수익이 확정된 상태로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협동조합 매칭 융자는 1.5억원을 출자해 15개 신생 에너지 협동조합의 발전사업 개시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안정적인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분야(6개 사업)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협력해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입주자보호기금 매칭 융자,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별 SVS 공급액은 0.5억~5억원으로 격차가 크며, 다다름하우스·에스키스가산·여기가 등 개별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은 브릿지 자금으로 단기간에 회수가 완료된 반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과 입주자보호기금 매칭 융자는 만기가 연장되며 장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 20.
프로젝트 금융 공급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년도	공급액	공급규모	비고
SIB 분야				
서울시 SIB 2호 사업 투자－청년 실업	2019	11.0	29.0	
부여군 SIB 사업 투자－치매 예방	2021	1.0	5.0	
지역혁신 & 시민자산화 분야				
로컬메이트 시민펀딩 매칭 대출	2020	1.0	2.0	
돌봄 거점공간 자산화－안산의료사회협	2020	0.9	0.9	총 사업비 44억
돌봄 거점공간 자산화－전주의료사회협	2020	0.4	0.4	총 사업비 20.5억
지역자산화 시민펀딩 매칭 대출－목포	2020	1.2	1.8	총 사업비 3.9억
지역자산화 시민펀딩 매칭 대출－제주	2021	0.6	0.9	총 사업비 6.5억
지역자산화 시민펀딩 매칭 대출－마포	2021	1.2	1.8	총 사업비 40.4억
재생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공장지붕 태양광 보급사업 투자	2020	4.9	24.9	총 사업비 142억
에너지 협동조합 자립지원사업 매칭 대출	2021	1.5	2.5	
사회주택 분야				
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 보증금 반환 보증	2021	3.0	3.0	
사회주택 입주자보호기금 매칭 대출	2021	2.6	4.6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다다름하우스	2022	0.5	1.5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에스키스가산	2022	1.0	1.1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여기가	2023	5.0	5.5	
전세사기피해 치유기금 매칭 대출	2024	0.5	1.0	

4) 중개기관 투·융자 및 재난대응 지원

중개기관 투·융자는 중개기관 및 지원기관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재난대응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전자는 SVS가 자금공급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중개기관의 성장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이고, 후자는 평시에는 작동하지 않는 비상 채널로서의 역할입니다.

중개기관 및 지원기관 투·융자(5개 사업)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중개기관의 운전자금이나 설립·유지자금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당 SVS 공급액은 0.1~1억원의 소규모입니다. 중개기관의 자본 기반을 직접 보강하는 사업과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혼재하며, SVS가 중개기관 생태계 자체의 안정성에 투자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 코로나19 대응(4개 사업)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불안정고용 노동자단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운전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0~2021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사업당 SVS 약정액도 1.5억~15.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집행이 요구되는 만큼 한도 조정이나 만기 연장 등 사후 조정이 다른 영역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표 21.
중개기관 투·융자 및 재난대응
지원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년도	공급액	공급규모
중개기관 및 지원기관 투·융자			
SIB 운영기관 운전자금 융자	2019	0.5	0.5
지역 중개기관 설립자금 투자	2019	0.1	0.5
P2P 금융기관 유지자금 투자	2024	1.0	1.0
사회연대경제 정책기관 운영자금 융자	2024	0.8	0.8
사회연대경제 교육기관 운영자금 융자	2024	0.2	0.2
사회안전망 & 코로나19 대응			
사회연대경제 코로나19 긴급운전자금 융자	2020	2.3	2.3
서울시 불안정고용 노동자단체 융자 지원	2020	15.5	24.0
봉제인공제회 융자	2020	5.0	5.0
노동공제 전문 지원기관 운영자금 융자	2021	1.5	1.5

회수 내역

'25년말 기준으로 11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투자 원금은 48.1억원이고 회수된 자금은 50.8억원입니다. 종료 사업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직접 집행 사업들이고 대부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회수 원료: 11개 프로그램

- 투자원금: 48.1억원
- 회수원금: 47.6억원
- 손실확정액: 0.5억원
- 회수수익: 3.2억원

손실이 발생한 2개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금이 아닌 별도 재원을 마련해 손실을 감수하고 시행한 사업들입니다.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 사업 중 하나는 민간 공익법인을 사회적 투자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SVS에서 자금을 차입해 상황을 보증하고 현장에 다시 공급한 건입니다. 완료 사업 중 차입금이나 특별기금 등 별도 재원이 아닌 출연금으로 진행한 8개 프로그램의 연평균 수익률은 7.4%로 집계되었습니다.

표 22. 종료 사업 내역
(단위:억원)

프로그램	공급액	수익률(연)	재원
서울시 SIB 2호 사업 선행 투자	11.0	9.0%	출연금
부여군 치매예방 SIB 프로젝트 투자	1.0	7.0%	출연금
경기도 SIB 운영기관 운전자금 용자	0.5	2.0%	출연금
지역자산화 시민편당 매칭 1	1.2	2.3%	출연금
지역자산화 시민편당 매칭 2	0.6	2.3%	출연금
로컬메이트 시민편당 매칭 용자	1.0	2.0%	출연금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 1	0.5	8.0%	출연금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 2	1.0	3.5%	출연금
사회주택 건립자금 대출 3	5.0	0.4%	차입금(공익법인 자금)
서울시 불안정고용 노동자 대출사업	15.5	-0.3%	차입·출연(지자체 기금)
사회연대경제 코로나19 긴급자금 용자	2.3	-5.8%	특별기금(재난연대기금)
계	48.1	1.9%	

BOX 7.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결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 운전자금 공급

'23.5월 화성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1명과 사회주택 활동가 등이 참여해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피해주택 21채를 인수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이 주도해 임대주택 운영을 안정화하고, 조합원들의 전세금을 순차적으로 반환, 25.5월 피해자 21명 모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한국사회주택협회는 SVS 자금을 포함해 9.9억원을 탄탄주택협동조합에 저리 융자하였고,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추가로 지역신협자금 및 지자체기금 8.6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전세자금 반환율, 즉 피해복구율은 93.6%로, LH의 피해복구율 80%보다 높습니다.

BOX 9.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자산화 지원 출자

SVS는 '20.5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새안산헬스케어센터와 통합돌봄센터 자산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산의료사회협은 보건·의료 관련 생활의 문제를 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해 해결하고자 '00년 설립되었고, '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등 일차의료사업소 운영합니다.
'19년 통합돌봄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지자체기금, 주거래은행, SVS, 지역 신협 등에서 44억원 조달, 상가 건물 3개층을 매입했습니다. SVS는 부채비율을 고려해 9천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전후 비교('18년 → '24년): 유급근로자 114명(취약계층 44명) → 465명(취약계층 290명), 매출 47억원 → 165억원, 자산 27억원 → 100억원으로 증가

BOX 11. 사례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자립지원 자금 공급

신생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들이 발전소 설치를 통해 자립 가능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발전소 설치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연합회는 SVS에서 공급한 자금을 자체 자금을 매칭하여 2.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회원사 중 발전설비용량 1MW 이하를 보유한 협동조합에 발전소 건립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15개 신생단계 에너지협동조합의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25년말 기준, 15개 협동조합이 설치한 발전설비용량은 5MW이고, 연 매출액은 15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연간 탄소 감축량은 2,813톤입니다.

BOX 8. 사례

부여군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투자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방식으로 부여군 노년층 대상 치매이환율 저하를 위해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ICT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스마트 커뮤니티케어 모델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사후성과보상계약을 기반으로 SVS 등 민간기관에서 5억원을 선투자하였습니다. '21~'24년 3년 간 사업참여자 중 평가를 완료한 264명 가운데 치매 이환자는 9명(3.4%)으로 목표한 '치매 이환율 9.7% 이하'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여군은 계약에 따라 민간 투자자에게 사회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IRR 7.0%)

BOX 10. 사례

사회적기업 (주)에이아이웍스 성장자금 투자

경력단절여성·발달장애인·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IT기업으로 포용적이고 관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15년 설립되었고 '17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24년말 고용인원 192명, 연매출 100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19년 회사의 성장을 위한 첫 투자금 10억원 및 '20년 후속 투자금 10억원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으로부터 조달하였습니다. 투자자는 임팩트 투자사인 ㈜D3주빌리파트너스입니다.
SVS는 '20년 D3주빌리파트너스가 결성하는 2번째 임팩트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펀드에서 ㈜에이아이웍스에 투자한 10억원 중 일부는 '26년 1.85배로 부분 회수되었습니다.

BOX 12. 사례

중소기업 공장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자본투자

중소기업이 소유한 공장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에 에퀴티 자금 4.9억원을 공급하여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였습니다.
임팩트 투자 중개기관들과 공동으로 24.9억원을 투자하였고, 금융기관과 협력해 공장지붕 태양광 전문 대출펀드 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총 142억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5년말 기준, 60개 공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었고, 발전설비 용량은 21.6MW입니다. 연간 탄소감축량은 12,249톤입니다.
'20년에 투입된 자금은 '25년말 후속 투자 유치 과정에서 회수가 확정되었습니다.(IRR 7.7%)

사회연대경제 피투자기업 현황

1) 활동 영역 – 사회적 가치 중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추구 현황

SVS는 사회투자 도매기금으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및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임팩트 분류 등을 참고하여 개별 투·용자가 목표로 하는 임팩트 영역을 설정하고, 임팩트 효과를 분석·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림 13.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24년말 기준 UN의 지속가능목표인 UN SDGs 분류기준에 따르면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26.4%, SDG 3(건강하고 행복한 삶) 14.7%, SDG 8(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14.6%, SDG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0.8% 영역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4년 투·용자 기업 수는 총 321개이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SDG 8(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25.9%, SDG 3(건강하고 행복한 삶) 17.1%,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0.9%,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0.0%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14. 투·용자 기업 수(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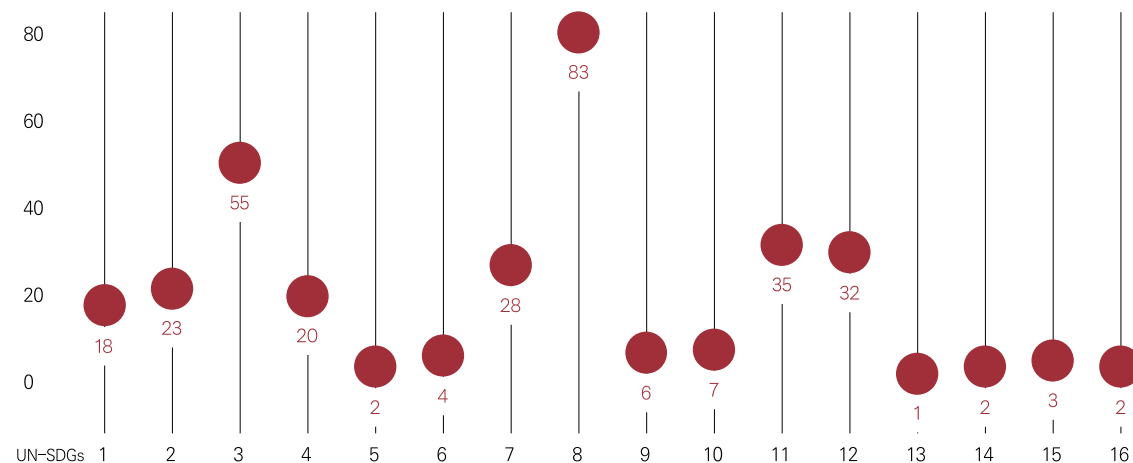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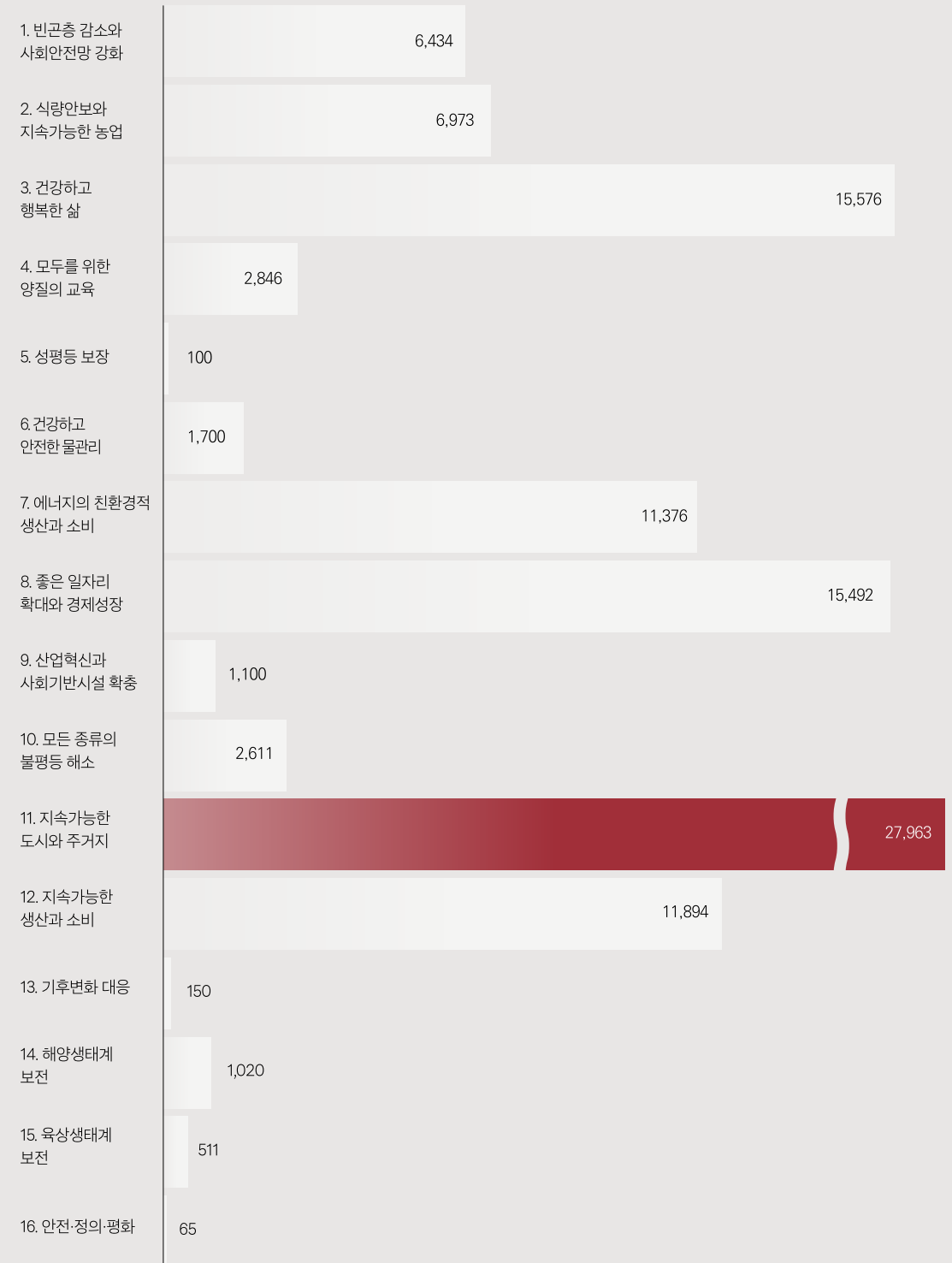


그림 15. 투·용자액(단위: 백만원)



8대 주요 분야 모니터링

'19년 SVS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다루는 주요 의제와 경제·사회적 기회 요인을 고려해 8대 분야(SIG, SVS Impact Goals)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8대 분야는 투·용자 프로그램의 사회가치 지향성을 심사하고 피투자기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16. SVS 임팩트 목표 (SIG)



24년 투·용자 금액은 총 1,058억원으로, SIG 5(환경,에너지,농어업) 분야에 35.2%, SIG 3(도시재생·문화예술) 분야에 20.3%, SIG 4(건강·고령화케어·장애인복지) 분야에 17.6%, SIG 7(양질의 일자리·고용)분야에 14.1%가 공급되었습니다.

24년 투·용자 기업 수는 총 321개입니다. SIG 5(환경·에너지·농어업) 분야에 95개 기업(29.6%), SIG 7(양질의 일자리·고용) 분야 85개 기업(26.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SIG 4(건강·고령화케어·장애인복지) 분야 15.0%, SIG 3(도시재생·문화예술) 분야에 10.9%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림 17. 투·용자 금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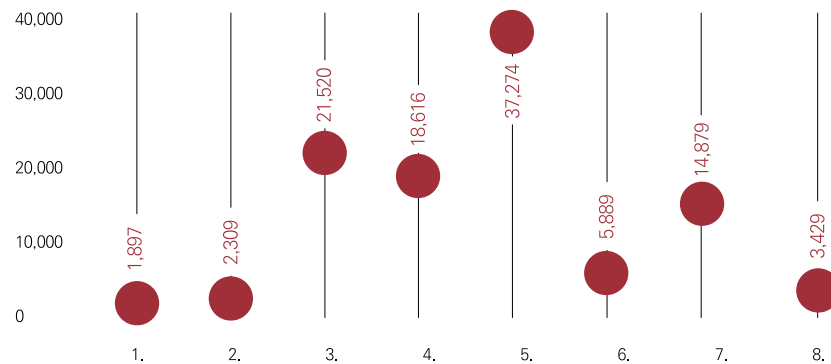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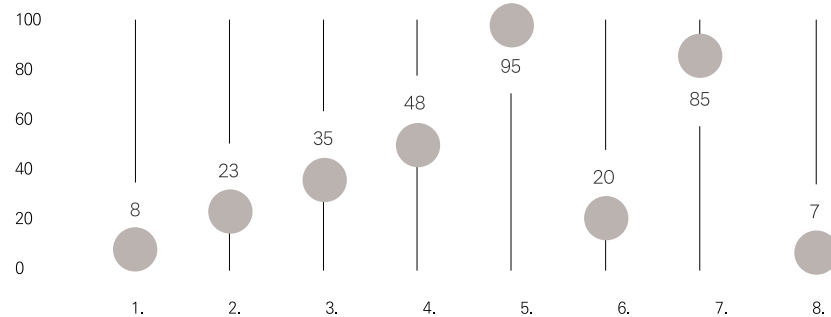


그림 18. 투·용자 기업 수 (단위: 개)



2) 기업 유형 및 지역·업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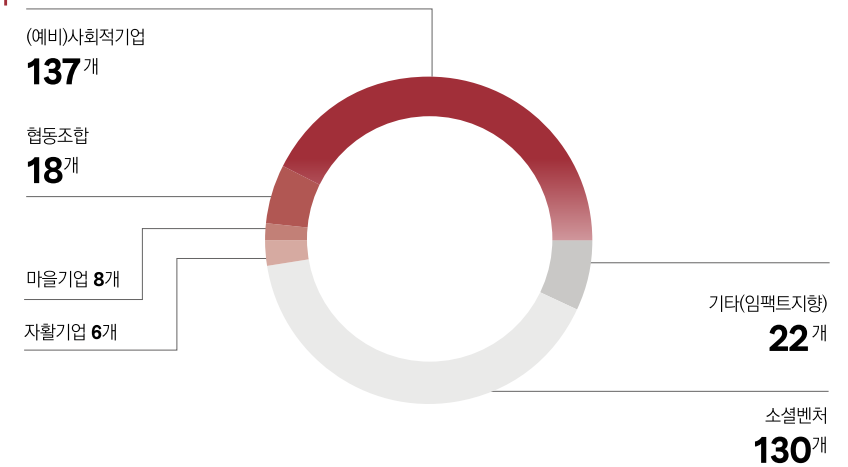
중개기관 투·용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설립연차는 평균 7.12년으로, 3년이하 초기기업(12.9%)과 4년~6년차 초기성장단계기업(43.9%)이 전체 비중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년~10년 성장단계 기업은 26.1%, 11년 이상 성숙단계 기업은 17.1%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유형

투·용자가 지원된 321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유형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42.7%, 소셜벤처 40.5%, 협동조합 5.6%, 자활·마을기업 4.4% 등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어, 해당 기업의 유형 비중이 낮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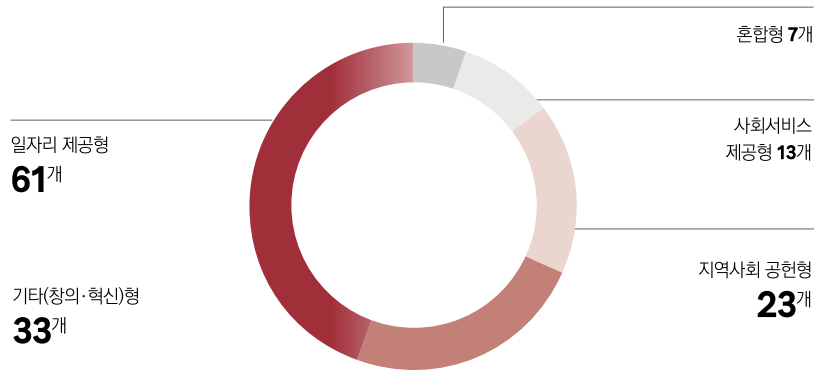
그림 19. 사회연대경제 기업 유형별 기업 수 (단위: 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투·용자가 지원된 137개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인 일자리 제공형 비중이 44.5%로 가장 높으며, 사회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주목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은 24.1%, 지역사회 공헌형 비중은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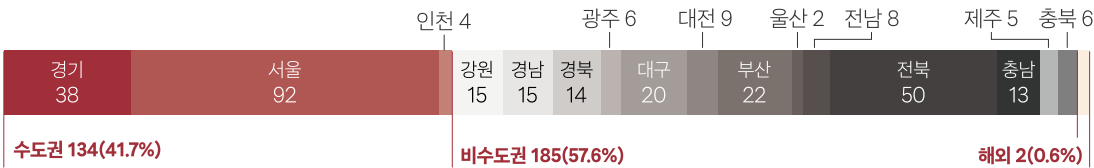
그림 20.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기업 수
(단위: 개)



지역별 투·융자 분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연계되어 중개기관을 통해서 공급된 투·융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41.7%, 비수도권 57.6%입니다. 지난 4년간의 전북 지자체 사회적 경제기금 매칭융자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전북이 높은 비중(15.6%)을 차지하고 있으며, '22년부터 대구 및 부산지역 매칭 융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21년부터 강원, 경남, 경북, 제주 등 지역특화 소셜임팩트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대출형 중개기관을 통한 비수도권 자금공급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 공급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적 집종의 결과로 비수도권의 투·융자 기업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21. 지역별 투·융자 기업 수(단위: 개)



업종별 투·융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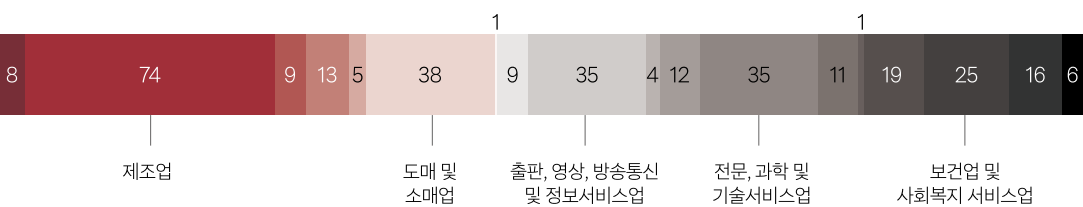
투·융자 포트폴리오의 표준산업분류와 해당 산업별 주요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 산업영역에서 사회문제를 재무적 비즈니스를 추구하면서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업종별 분포에서는 제조업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 11.8%, 정보서비스업 10.9%, 기술서비스업 10.9%, 교육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 주요기업 사례를 보면 친환경 종이가구 제조,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대 기부, 휠체어 사용 대상 피트니스 솔루션 제공,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배달, 전기차 배터리 기반 이동형 ESS 제작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전 산업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역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증가 추세로, 생활 쓰레기 문전 수거 서비스, 느린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홈 재활 솔루션, 비대면 만성질환자 관리 플랫폼, 스마트 점자 시계 및 테블릿 솔루션 제공, 재생 에너지 예측기반 가상발전소 솔루션 등에 투·융자가 지원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참여가 높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주요기업 사례를 보면, 노인장기요양 간병·가사돌봄, 지역 밀착 의료서비스, 노인 치매 디지털 치료를 위한 기능성 게임 솔루션, 뇌손상 성인을 위한 원격 재활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그림 22. 업종별 투·융자 기업 수(단위: 개)



업종(표준산업대분류)	기업 수	비율	주요기업 사례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8	2.5%	지역 수산물 채고 해결, 공정무역 기반 카카오의 제주농가 결합 판매, 곤충 스마트팜
■ 제조업(10~34)	74	23.1%	업사이클 패션제품 제조, 폐기물 활용 원단 제조, 음식물 쓰레기 활용 곤충 사료 제조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	9	2.8%	잉여 전력 이웃간 거래와 전력 판매 시스템 개발·서비스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6~39)	13	4.0%	주민 참여형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 해양 폐기물 활용 재생원료 제조
■ 건설업(41~42)	5	1.6%	자활기업 위주, 취약 저소득계층 집수리·주거환경 개선 사업
■ 도매 및 소매업(45~47)	38	11.8%	식물성 달고기 대체육 유통, 중고의류 재사용 판매, 로컬 특산물 리브랜딩 판매
□ 운수업(49~52)	1	0.3%	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소프트웨어를 통한 청각 장애인 택시 운영
■ 숙박 및 음식점업(55~56)	9	2.8%	폐 조선소 활용 복합문화공간 운영, 외국인 여성 고용 음식점 운영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35	10.9%	청각 장애인 자원서비스, 오픈 관리 핀테크 플랫폼, 디지털 아동 그림 보관 서비스
■ 금융 및 보험업(64~66)	4	1.2%	이주 노동자 해외송금,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대출형 임팩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12	3.7%	로컬 공간 콘텐츠 기획, 유희 공간활용 도시재생, 사회주택 건축·임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35	10.9%	치매 치료용 패치 개발, 제3세계 백신 보급을 위한 마이크로 니들 개발, 해양 기름 수거 로봇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6)	11	3.4%	취약계층 청소 용역 서비스, 친환경 다화용기 대어·회수 서비스, 폐기물 관리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	0.3%	지역 사회연대경제 통합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 교육 서비스업(85)	19	5.9%	지역 아동 치료, 전통놀이 보급, 공예 교육 서비스, 지역 콘텐츠 보급·교육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25	7.8%	돌봄(가사,간병)서비스, 치매 진단 케어, 장기요양 돌봄인력 제공, 언어 재활 솔루션 제공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6	5.0%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스포츠 프로그램 교육·행사, 문화예술 공연 기획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94~96)	6	1.9%	공익활동가 상호부조, 장난감 수리·재생 판매
합계	321	100.0%	

3) 매출, 자산 및 고용 규모

매출규모

’23년말 기준,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총 매출액(303개 기업 응답)은 7,914억원이며, 4~6년 초기성장단계기업의 매출비중(41.3%)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중위값 기준) 매출규모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성장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기기업이 116백만원, 초기성장기업이 376백만원, 성장단계 기업이 740백만원, 11년 이상 지속기업은 1,855백만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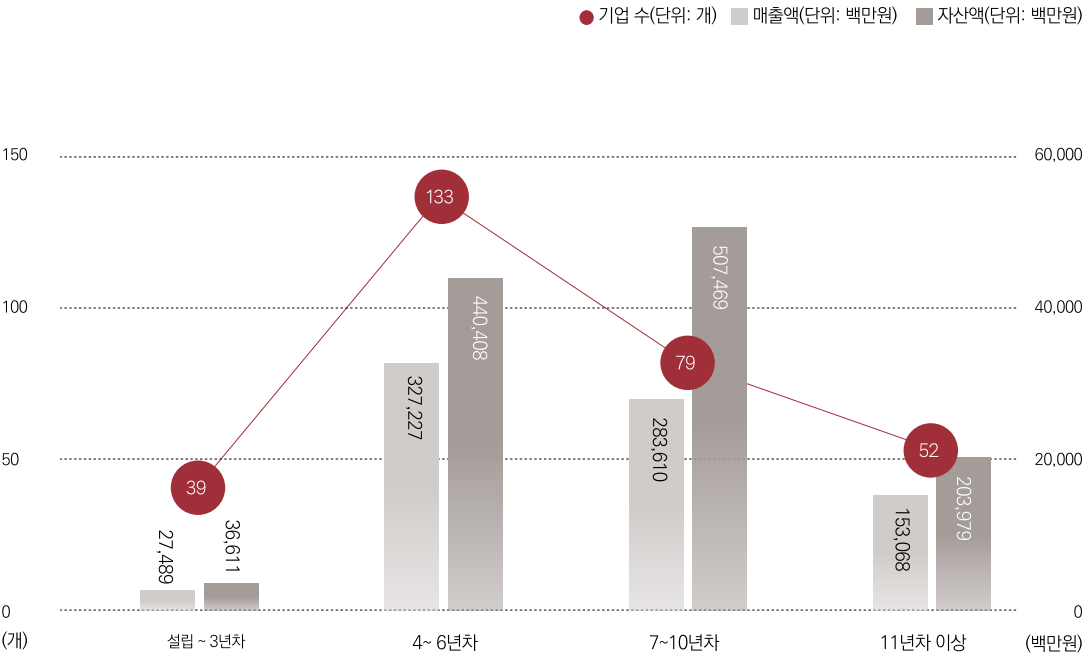
’23년말 기준,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총 자산규모는 11,885억원(297개 기업 응답)이며, 설립 7~10년차 기업 42.7%, 4~6년차 기업 37.1%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립연차별 기업평균 자산규모는 설립 4~10년차의 경우 평균 9억~9.5억원, 11년차 이상은 평균 16.8억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규모

’24년 기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연계한 중개기관의 투·융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고용인원(303개 기업 응답)은 총 14,762명으로, 설립 4~6년차의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10,397명(70.4%)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의 고용인원은 총 9,519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64.5%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인원은 총 6,526명(44.2%)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총 인건비는 2,89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은 36.6%입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공시하는 기업경영 분석지표 중 ’23년 전 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6%인 것을 고려하면 일반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당 평균고용(중위값) 인원은 9명으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고용규모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3. 설립 연차별 분포와 규모



V. 기반조성 활동 내역

SVS는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는 한편, 자금 공급 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기반조성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자금공급 사각지대를 탐색하고 대응하기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해 지원 및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01

중개기관 육성 및 교류 촉진

SVS는 신생 중개기관이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개기관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역량개발, 네트워크 형성, 국제교류 등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1) 교육 및 역량개발 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운영

'22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및 사회연대경제 지원조직 실무자 대상 전문가 양성 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사회적 금융 실무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를 강사로 발굴하여, 사회적 가치 평가, 자금조달, 재무제표 분석, 투·융자 실무 등의 내용으로 과정을 구성합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25년에는 실험 상생협력대출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 4년 간 누적 수강인원 814명(연인원, '22~'25년)
- 교육 과정은 20시간 내외 분량으로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
- 수강생 만족도 평균 4.7~4.8점(5점 척도)

자금조달 설명회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사회적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노하우를 안내하는 전국 단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총 9회 온라인 자금조달 설명회 개최(연 1~2회, 회당 100여명 참여, '22~'25년)
- 오프라인 방식의 지역별 자금조달 설명회 병행(연도별 5개 지역 내외, '23년~)
- 자금조달 길라잡이 책자 공동 발행('23년)

지역 중개기관 육성: 컨설팅, OJT 및 상호학습 지원

사회적 금융 또는 사회적경제 자조기금을 운영하는 지역 조직을 대상으로, 자조기금 조성 및 대출 사업 운영 매뉴얼 구축과 운영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 전북, 경남, 대구, 제주, 부산, 강원, 평택 등 지역 중개기관 대상 일상 자문, 실무자 맞춤형 교육, 대출심사 동행 및 멘토링, 대출관리 시스템 등 지원('20년~)
- 상호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17개 조직 참여), 온라인 월례회의 및 워크숍 운영('22년~)

인프라 조성 협력

-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K 공동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및 활용 협약 체결('19년)
- 서민금융진흥원 공동, 대출형 중개기관 실태조사 진행('19년)

2) 중개기관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 포럼' 운영

SVS는 '20년말 24개 기관과 함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사회적 금융 포럼은 사회적 금융 발전을 위한 중개기관들의 상시적인 교류·협력 거점으로 상호학습, 제도개선, 시장 데이터 생산, 사회적 금융 공론장 형성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이 이 틀을 활용해 이루어졌습니다. SVS는 사회적 금융 포럼의 회원기관이자 간사단체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연례행사 개최 – 씨밋, 컨퍼런스, 박람회 부대 행사

회원기관과 함께 매년 '사회적 금융 씨밋·컨퍼런스' 형식의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한 해의 생태계 조성 활동을 종합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사회적 금융 의제를 부각하며 참여 주체의 확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연례행사에는 중개기관과(예비)투자기관 간 교류회, 역량개발 워크숍, 해외 사회적 금융 전문가 초청 교류회 등을 함께 배치하여 네트워킹과 의제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사회적 금융 비전 포럼 개최('21년)
-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부대행사 형태로 사회적 금융 관련 토론회 개최('21~'22년)
- 자체 연례행사 "사회적 금융 포럼" 및 '씨밋' 개최(누적 참여자 810명, '23~'25년)

서베이·정책제안

포럼 참여기관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금융 서베이 등 시장 데이터를 생산하고, 총선 및 대선 시기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공동의 정책 요구안을 도출·제안하였습니다.

- 「사회적 금융 2020 서베이」보고서 발간(21년)
- 제21대 총선 사회적 금융 정책요구안(20년), 제20대 대선 사회적 금융 정책요구안(22년), 제21대 대선 사회적 금융 정책요구안(25년) 발표 및 간담회 개최

사회투자 IR간담회 개최

중개기관과(예비)투자기관을 연결하는 IR·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투자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개최하였고, 누적 23개 중개기관, 41개(예비)투자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활동

1) 사회적 금융 활성화

SVS는 출범 이후 “사회적 금융” 정책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화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사회적 금융 정책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19. 9. 20)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21. 2. 18)
- “소셜임팩트투자 및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25. 8. 7)
-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속 토론회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공동 개최(25. 11. 6)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의회와 협력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정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모아 실험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출자 근거 마련, 자활공제 법적 근거 마련, 휴면금융자산 활용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고, 국회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민형배의원 등, '21.12월) → 임기만료 폐기
- ➔ 「신용협동조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용혜인의원 대표발의, '25.11월)

이와 함께 국책 연구기관의 사회적 금융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 이슈 브리프 2021 - 사회적 금융> 발간 참여(21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참여(23년)

2)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지원

SVS는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을 지원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은평구, 성동구, 성북구 등 지자체 기금운영위원회 참여
- 경기도, 제주도, 화성시 사회적 금융 관련 정책연구 수행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개선방안 연구> 수행(경기연구원 발주, '22년)
- <화성시 소셜벤처 육성전략 및 자원조사 연구>, <화성시 사회적경제 성장 단계별 분류 및 지원체계 수립 연구> 수행(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발주, '23~'24년)
- <제주형 사회적 금융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연구> 수행(제주도의회 발주, '25년)
- <2025년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현황> 보고서 발행('25년)

또한, 사회적경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려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 정보와 의견 제시로 지원하였습니다.

- 전라북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조례 제정 지원(20년)
-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조례 제정 지원(23년)

한편, '19년 서울시와 협력해 지자체 기금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의회 및 행안부에 요청하였고, '21년 해당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김영배의원 등 15인, '21.1월 개정, '21.4월 시행)

3)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영리성이 낮은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사회서비스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참여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가 활발한 다른 나라의 법·제도 현황을 참고해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지원으로 상증세법 개정을 통한 ‘공익목적 투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제안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참여 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금융지원 대책 수립방안 연구> 수행(보건복지부 발주, '22~'23년)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워킹그룹’ 참여 -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의제 검토 지원(중앙사회서비스원, '24~'25년)

- '재단법인 동천'과 협력해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을 위해 상증세법 개정안 마련, 민간 간담회 및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윤호중의원 등 11인, '25.1월)

4) 사회연대경제 방식의 공제 활성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노동공제 조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 기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습니다.

- “노동공제조합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21. 11. 17)
- 한국협동조합학회, <특고·플랫폼 종사자 공제조합 모델개발 연구> 참여(고용노동부 발주, '22년)
-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안호영의원 등 12인, '21.11월(21대), '25.4월(22대))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생활 속 연대를 통해 자조적인 상호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생협 공제, 협동조합 공제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공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였습니다.

- “사회연대공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22. 2. 9)
- <공익활동가 공제 대출사업 개선 방안 연구> 참여(사회적협동조합 동행, '25년)

SVS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만든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피해치유기금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LAB2050가 진행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를 위한 시민편당에도 참여하였습니다.

- LAB2050 & 나이오트,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 시민편당 참여, 연구결과 발표회 공동 개최('25년)

03

홍보 및 국제교류

1) 홍보

SVS는 사회적 금융 영역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질의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상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와 소식, 동향을 주기적으로 발신하였습니다. <SVS 인사이트>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사례와 동향, 주장과 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시의성 있고 영감을 주는 내용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도서를 선정해 한국어판으로 번역 출간하였고, 연구자·활동가·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연대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도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25년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최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도서의 출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 채널 구축 관리

SVS 홈페이지(한·영), 사회적 금융 포럼, 사회적 금융 허브, 기타 캠페인 페이지 개설 및 운영

- SNS 온라인 매체 통한 포스팅(페이스북, 블로그 등)
- 월간 뉴스레터 발송(구독자 4,460명, 평균 오픈율 27%)
- 언론사 기획 연재

SVS 인사이트 발행

- 1호, 플랫폼 협동주의(양석원, '20.5월)
- 2호, 협동조합 자금조달 사례 조사 및 시사점(서진선, '20.5월)
- 3호,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박규섭, '20.8월)
- 4호, 그린 뉴딜과 사회주택(최경호, '20.9월)
- 5호, 사회적 금융의 상상 - 해외 사회적 금융 사례 소개(정종덕, '20.12월)
- 6호, 퀘백주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특징(이미옥, '21.10월)
- 7호, 전통적 금융과의 대조를 통해 본 사회적 금융의 현재와 미래(박종현, '22.1월)
- 8호,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검토와 제도화를 위한 발전 방향(구본우, '23.7월)
- 9호,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김효선, '25.5월)
- 10호,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 탄탄주택 협동조합을 중심으로(탄탄지 연구팀, '25.10월)

사회연대경제 전문도서 발간 지원

- 「세상을 바꾸는 캠페이너」 번안 출간 지원(켄자스대학 지역보건발전센터 지음, 재단법인 와글 옮김, '20.4월)
- 「가난한 사람들의 선언: 사회연대경제, 아래로부터의 대안」 한국어판 출간 지원(프란시스코 판 더르 호프 보에르스마 지음, 박형준 옮김, 마농지, '20.4월)
- 「사회적경제, 풀뿌리로부터의 혁신: 퀘백 사회적경제 이야기」 한국어판 출간 지원(낸시 님탄 지음, 홍기빈 옮김, 쿵드림, '22.6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펴냄
-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 강물이 바다로, 연대하는 자조의 물결」 출간 지원(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엮음, 경인문화사, '23.6월)
- 「자본보다 사람의 힘으로 일군 사회적경제기업 성공 스토리 31: 1,000명이 함께 착한 건물주가 되면 어떨까요?」 출간 지원(정원각 지음, 북돋움, '25.3월)
- 「사회연대경제 - 21세기의 현실적인 유토피아?」 한국어판 출간 지원(로베르 브와에 지음, 박충렬·안정현 옮김, 송원근·김형미 감수, 경인문화사, '25.5월)

사회연대경제 및 시민사회 협력

(네트워크 지식허브 H-ESG 지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지식허브 ‘H-ESG’에 참여해 제3섹터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 ESG” 실현을 위한 생각을 나누고 제도와 사례를 학습하며 바람직한 규범과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였습니다.

- 2021 아시아미래포럼 - “사람 중심 ESG” 세션 공동 운영(21.10월)
- <사람중심 ESG를 말한다> 보고서 발행 지원(22.2월)
- 온·오프라인 세미나·토론회 개최 지원(22~25년, 21회)
- UNRISD, <지속가능발전성과지표(SDPI) 사용자 매뉴얼> 한글판 출간 지원(24.10월)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BTSE 운영) ’22년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방향을 학습하고 토의한 후 그 내용을 갈무리해 ’23년 여름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 강물이 바다로, 연대하는 자조의 물결」 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18인의 저자가 참여하였고, 도서 발간 후 8개 지역을 순회하며 북토크를 개최하였습니다.

(HERI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협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24~25년 기간에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 제22회. 2025년 유엔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24. 7. 2)
- 제23회. 인구위기 시대, 사회적경제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24. 11. 5)
- 제24회. 국정과제 후속 논의: 사회연대경제 실행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대화(25. 8. 20)
- 제25회. 사회연대경제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25. 9. 29)

(노동-시민사회 연대 솔라시포럼 공동 운영) 솔라시포럼은 노동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경계를 허물고 지속적인 연대와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입니다. ’23년부터 매년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고,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제교류

SVS는 국내 사회적 금융 현황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의 정책·사례를 국내에 전파하는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 포럼·회의에서 SVS의 도매기금 운영 사례를 발표하여 한국 사회적 금융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퀘벡·영국·유럽 등의 사회적 금융 유관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주요 자료를 번역·출간하여 지식 기반을 확충합니다.

도서 번역 출간

- 퀘벡 사회적 금융 네트워크 CAP Finance 「사회적경제 기업 분석 가이드」 번역 출간(’19년)
- GIIN 국제 임팩트 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 「2023 GIINsights 시리즈」 한글판 발행(’24년)
- UN사회연대경제TF 정책 브리프 「개발자원 -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 활용하기」 한글판 발행(’25년)
- GSG Impact, 「임팩트 투자 도매기금과 재간접 펀드 - GSG 임팩트 파트너십의 설계 인사이트」 한국어판 번역 출간(’25년)

국제 네트워크 활동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AVPN(아태 임팩트 투자자 네트워크) 등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해 국가 간 연구·세미나 활동에 협력하고, 한국의 사회적 금융 현황과 사례 소개

- GSEF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워킹그룹 참여(’24년~)
- 윤리적 은행 모델을 지향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GABV(가치금융 국제협의체) 가입 지원, ’25년 성남 주민신탁이 국내 최초로 준회원 가입

해외 인사 초청 세미나·교류회 개최

- 영국 공동체주식 관련 Commonly 대표 사이먼 보킨 초청 간담회 - online(’20년)
- 퀘벡 사회적 금융 웨비나 개최 - online(연 1회, ’20~’23년)
- 사회적 금융 포럼 행사에 미국 CDFI 중개기관 네트워크 Inclusiv, 유럽 윤리은행 연합회 FEBEA, 국제가치금융연합회 GABV, 국제상호보험협회 ICMIF, 일본 코프생 협공제련 등 사회적 금융 관련 해외 연사 초대, 사례 소개 및 유관기관 교류 지원(’ 2 3 년)
- 사회연대경제 국제 동향 관련 前 GSEF 사무국장 박은경 초청 세미나 - online(’24년)
- CWB(지역공동체 부 만들기) 관련 영국 프레스턴 시장 매튜 브라운, 전문가 닐 맥인 로이 초청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간담회 개최(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희망제작소 공동 개최, ’24년)
- 해외 도매기금 사례 발표 및 보도 - 일본 도매기금 운용기관 JANPIA 투자 책임자 초대 사례 발표 및 교류회, 영국 BSC 임팩트 담당 필립 에슬 온라인 사례 발표(’25년)

사회적 금융 관련 국제 사회에 한국 사례 및 현황 소개

- 국제 도매기금 네트워크 GSG Impact 웨비나 - SVS 사례 및 한국 사회적 금융 현황 발표(’20년)
- GSEF Virtual Forum 2021 - 패넬 참여, SVS 사례 발표(’20년)
- 아시아재단 AADC2020 국제 웨비나 - 연사 참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역할 발표(’20년)

- GSG Impact 세미나 - 한국 현황 발표(22년)
- 콜롬비아 공무원 사회적경제 연구 과정, 한국의 사회적 금융 정책 소개(KDI 협력, 22년)
- 2024 Asia Impact Night 사례 발표 - 촉매자본으로서 SVS 사례(24년)
- 2024 SOCAP - 동남아시아 임팩트 투자 세션 패널 참여(24년)
- GSEF-FAIR 세계 사회적 금융 연구 프로젝트 SVS 사례 소개(25년)
- GSG Impact 아시아 도매기금 웨비나 - SVS 사례 발표(25년)
- GSEF2025 보르도포럼 전체 세션, 주제별 세션 발표(25년)

국가 간 협력연구 참여 및 공동행사 개최

- CAP Finance, 방카에티카, AVPN, 라보랄쿠차 공동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 금융의 미래” 워크숍 세션 개최(GSEF Virtual Forum 2021 중, 20년)
- OECD-EU “글로벌 사회적 경제 생태계 촉진 프로젝트” 컨소시엄 SILK 참여(20~21년)
- ICA 서울대회 후원, 아시아 정책대회 참여(21년)
- GSG Impact 전세계 도매기금 현황 보고서 발행 작업 협력(22~23년)
- GSG 임팩트, 나라별 도매기금 현황 보고서 작업 참여, 한국 사례 수록(24년)
- UN사회연대경제TF, 나라별 자금조달 사례 보고서 작업 참여, 한국 사례 수록(24~25년)

04

자금공급 사각지대 대응

SVS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사각지대의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 대해, 출연금 외 별도 재원을 마련해 기술 역량을 갖춘 사회혁신 주체를 육성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와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는 등, 일반적인 자금 공급이 닿기 어려운 영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기술역량을 가진 사회혁신 주체 육성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사업(20~23년)

SVS는 KT·임팩트스퀘어와 협력하여,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보건·환경·빈곤·지역경제 등 분야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실현금과 KT의 ICT 자산·경영컨설팅 등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KT의 후원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 운영(20~23년)
- 매년 6~8개 기업을 선정, 개별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의 사업실현금과 ICT 지원을 제공하고 성과 우수 기업에는 추가 실현금·임팩트 투자 연계

2) 코로나19 재난 대응

사회연대경제 기업 긴급운전자금 융자 및 자금조달 지원(20~22년)

코로나19로 매출 절벽에 직면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공공기관·기업 등의 출연으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운전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 약 4억원의 재난연대기금 조성해 25개 기업에 코로나19 긴급운전자금 2.3억원 융자, 이후 일부 회수자금을 활용해 55개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지원(투자자 1,512명 참여, 2.1억 모집, 20년)
- 코로나 위기로 드러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에 1.5억원을 안내자본 형태로 공급

불안정노동자 생계자금 융자 및 노동공제 육성(20~23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상부상조에 기반한 노동공제 조직의 결성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억원에 SVS 자체 자금 4억원을 매칭해 24억원으로 불안정 노동자 단체를 통한 생활 자금 융자 사업 수행
- 사업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자 단체 지원 전문조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노동자 단체와 여러 지원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조직 설립을 지원해 21년 노동공제연합(사) 출범
- (사)플빵 육성을 위해 재난연대기금을 활용해 운전자금 1.5억원 융자, KT와 포스코 후원으로 3년 간 약 1.5억원의 사업개발비 지원, 집행·운영·자산운용위원회 등에 참여해 운영 지원
- (사)플빵은 26년 6월 기준 45개 회원조직, 약 5천명 공제회원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성장

개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 생산력 보존 지원(20~21년)

코로나19로 개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닥친 위기를 국제적 연대로 극복하기 위해, 국내 공정무역 사회연대경제 기업들과 함께 “개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 코로나19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4월 코이카(KOIC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피해 저감 및 생산력 회복을 위한 사업을 개발해 지원하였습니다.

- 총 10억원의 재원으로 운영기관(열매나눔재단)과 함께 전 세계 38개 기관에 인건비·임차료·사업화 자금 50만 달러 지원
- 국가 간 교류와 접촉이 차단된 상황에서, 기존에 공정무역 거래망을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채널로 신속히 전환해 활용
- 지원 결과 코로나19 발생 직후 대비 종사자수, 생산량, 판매량 측면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으나, 지원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아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향은 확인하지 못함

코로나19 대응 재난연대기금 조성 및 활용 내역('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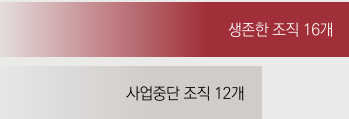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 재난연대기금 4억원 조성 및 집행('20년)

- 조성 기부금 3억원, 지원금 1억원(KT-공동모금회 사업비)
- 투·융자1 사회연대경제 기업 대출 2.4억원(25개 조직, 중개기관 보수 포함)
- 투·융자2 불안정고용 노동자 사회안전망 자금 대출 1.5억원(1개 조직)
- 지원1 비영리단체 지원금 형태 지출 0.1억원(2개 조직, 지정기부금)

재난연대기금 2억원 회수 및 2차 집행('21~'23년)

- 회수 사회연대경제 기업 대출 2.4억원 중 2억원 회수(21개 조직 상환)
 - 회수불가액 3,400만원 손실 처리
- 지원2 사회연대경제 기업 클라우드펀딩 지원 등 1억원 집행(55개 프로젝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금 성격의 사업으로 집행
- 투·융자3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재용자기관 구제금융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활용 기업의 파산으로 연쇄 위기에 처한 중개기관 경영 안정화 지원

재난연대기금 지원 조직 생존 현황(28개)



생존율
57%
(*24.6월 기준)

표 23. 재난연대기금 조성 및 활용 내역 (단위:원)

항목	금액	비고
재난연대기금 조성	403,996,880	2020년
- 기부금	303,996,880	민간 기부금
- 지원금(공동모금회 사업비)	100,000,000	KT-공동모금회 사업비
재난연대기금 사용(1차)	398,615,000	2020년
- 코로나19 대출	233,000,000	25개 조직 대출
- 중개기관 운영비	3,390,000	대출관리 중개기관
- 코로나19 지원	12,225,000	지원금 형태 지출(2개 조직, 지정기부)
- 노동공제 대출	150,000,000	불안정고용 노동자 사회안전망 자금 대출
재난연대기금 회수액	199,168,750	2021~2023년
- 기부금 활용 대출 회수	99,168,750	21개 조직 상환(3,400만원 상각, 4개 조직)
- 지원금 활용 대출 회수	100,000,000	KT-공동모금회 사업비
재난연대기금 사용(2차)	199,912,000	2022~2024년
- 클라우드펀딩 지원	91,000,000	55개 프로젝트 자금조달 지원
- 중개기관 운영비	9,000,000	상환관리
- 중개기관 유지자본금 투자	99,912,000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재용자기관 지원

VI. 회고 및 향후 과제

SVS 사업의 성과 회고와 평가는 매년 이사회 보고를 통해 검토되며,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과제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중점과제 이행현황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추적됩니다.

01

주요 성과

1)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중개기관의 성장

SVS에서 참여한 55개 투·융자 프로그램 가운데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 투·융자 프로그램은 44개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23개 중개기관과 파트너십으로 운영되었는데, 23개 중개기관 중 일반 금융이 아닌 사회적 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기관은 19곳입니다.

- 전국 범위 펀드운용 기관: 6개 기관(VC, AC, PE)
- 전국 범위 비영리 중개기관: 3개 기관(비영리 대출, 공제)
- 지역 범위 중개기관: 6개 기관(사단법인, 재단법인)
- 업종 전문 중개기관: 2개 기관(사단법인, 협동조합연합회)
- 신금융 전문기관: 2개 기관(SIB 운영기관, P2P 금융)

19개 기관 중 '25년에 SVS와 협력사업을 시작한 2곳과 신금융 전문기관 2곳을 제외한 15개 기관의 '22~'25년 사업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중개기관의 규모와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기관 업력 및 인력 규모

15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평균 업력은 12.4년입니다. 법인 설립 전 임의단체로 활동했거나 모태가 된 법인에서 활동한 시기까지 포함한 평균 사업 업력은 14.5년입니다. 전국 범위 중개기관들은 사업 연차 평균 19년 내외의 중견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업종 중개기관의 사업 평균연차는 12.5년, 지역 중개기관은 8.8년으로, 중개기관 모델이 지역과 업종별로 분화·발전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개 중개기관 평균 종사자수는 16.6명이고 상근인력은 15.3명입니다. 액셀러레이터, 비영리 중개기관, 지역·업종 중개기관 등 대부분 중개기관은 금융 중개기능 외에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개기관 종사자 전체를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금융 전문 인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역·업종 중개기관의 경우 지원 전문성을 갖춘 네트워크 조직에서 금융 중개기능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이런 혼합적 구조는 외부자금 수탁·관리 전문성 측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피투자기업을 위해 금융사업과 비금융 지원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약점은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강점에 기반한 효과를 키워가려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 24.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업력 및
인력 규모
(15개 기관)

구분	기관 수	법인 평균연차	사업 평균연차	종사자수	상근인력
전체	15개	12.4년	14.5년	16.6명	15.3명
- 펀드운용 기관(전국)	5개	16.8년	18.4년	32.2명	30.8명
- 비영리 중개기관(전국)	3개	12.3년	19.0년	7.7명	7.0명
- 지역 중개기관	5개	8.8년	8.8년	12.3명	9.8명
- 업종 중개기관	2개	10.5년	12.5년	2.5명	2.5명

중개기관 자금조달 및 투·융자 현황

15개 중개기관의 '25년 운용자산(AUM) 추정치는 4,882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2년부터 2,581억원 대비 4년 간 연평균 23.7%씩 성장한 규모입니다. 기관 평균으로 환산하면 '22년에는 199억원, '25년은 326억원입니다. '25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별 운용규모를 비교하면 펀드운용 기관의 평균 AUM이 842억원으로 가장 큼니다. 전국 범위 비영리 중개기관은 평균 198억원, 업종 중개기관 26억원, 지역 중개기관 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25.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연도별
평균 운용자산 규모
(15개 기관, 단위: 원)

구분	기관 수	'22년	'23년	'24년	'25년(추정)
전체	15개	199억	229억	273억	326억
- 펀드운용 기관(전국)	5개	417억	525억	693억	842억
- 비영리 중개기관(전국)	3개	150억	170억	189억	198억
- 지역 중개기관	5개	2.5억	3.3억	3.7억	5.0억
- 업종 중개기관	2개	18.6억	25.5억	21.5억	26.0억

15개 중개기관의 '25년 추정 피투자기업 수는 2,048개로 조사되었고, 이는 '22년 1,235개에서 연평균 18.4%씩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관 평균으로 환산하면 '22년 95개에서 '25년 137개로 증가하였습니다. '25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별 평균 피투자기업 수를 비교하면, 전국 범위 펀드운용 기관의 평균 피투자기업 수는 116개이고, 전국 범위 비영리 중개기관은 431개입니다. 지역 중개기관의 평균 피투자기업 수는 29개이고, 업종 중개기관은 16개입니다.

표 26.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연도별 평균 피투자기업 수
(15개 기관)

구분	기관 수	'22년	'23년	'24년	'25년(추정)
전체	15개	95개	109개	118개	137개
- 펀드운용 기관(전국)	5개	66개	83개	98개	116개
- 비영리 중개기관(전국)	3개	281개	337개	385개	431개
- 지역 중개기관	5개	15개	17개	20개	29개
- 업종 중개기관	2개	9개	13개	15개	16개

기업 당 평균 투자액은 '22년 2.1억원에서 '25년 2.4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증가는 펀드운용 기관이 주도하였습니다. '25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펀드운용 기관의 기업당 투자액은 7.3억원입니다. 반면 전국 범위 비영리 중개기관은 0.5억원, 지역 중개기관 0.2억원으로 규모에 있어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중개기관은 1.7억원입니다.

표 27.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연도별 평균 기업 당 투자액
(15개 기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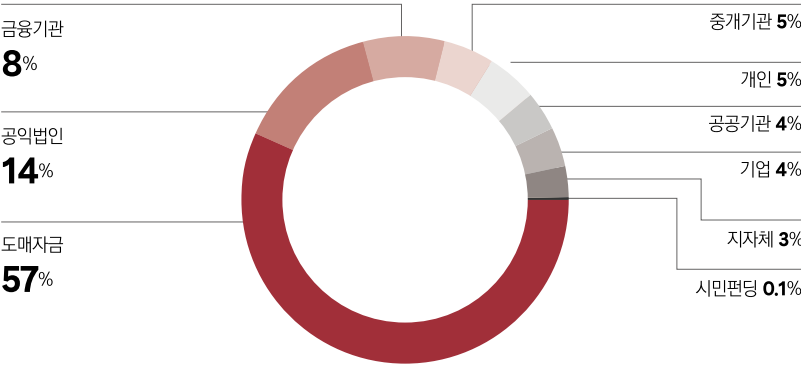
구분	기관 수	'22년	'23년	'24년	'25년(추정)
전체	15개	2.1억	2.1억	2.3억	2.4억
- 펀드운용 기관(전국)	5개	6.3억	6.3억	7.1억	7.3억
- 비영리 중개기관(전국)	3개	0.5억	0.5억	0.5억	0.5억
- 지역 중개기관	5개	0.2억	0.2억	0.2억	0.2억
- 업종 중개기관	2개	2.0억	2.0억	1.4억	1.7억

2) 다양한 사회적 투자자의 등장

SVS가 공급한 자금 232억원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공익법인 등 다른 투자자 자금과 결합해 총 1,885억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SVS를 포함해 참여한 투자자는 모두 121곳이고, 이 중 기관이 77곳, 개인 투자자가 44인입니다.

공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56.9%로 집계된 정책성 도매자금입니다. 정책성 도매자금은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기관들로 한국모태펀드(41.9%), SVS(12.3%), 한국성장금융(2.7%)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림 24.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한 투자자 구성



총 공급액 1,885억원 가운데 정책성 도매자금 1,072억원을 제외한 813억원은 이 기간에 등장한 사회적 투자자들이 공급한 자금입니다. 도매자금을 제외한 사회적 투자자 중 공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공익법인(13.5%)인데, 공익법인 공급액 253.6억원 중 150억원이 KB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KB사회투자기금은 KB금융그룹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KB금융공익재단에 출연해 조성한 기금으로 한국성장금융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그 밖에 금융권 재단(디캠프), 기업 재단(SK, 카카오, 대교),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 경남, 경북, 제주), 대학(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제주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외에 금융기관(8.2%), 개인 투자자(4.8%), 공공기관(4.1%), 기업(3.7%), 지자체(3.3%)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시민들의 소액 출자를 의미하는 ‘시민펀딩’ 또한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자금들이 기성 금융기관이 아닌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신흥 중개기관을 통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기관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자금은 101억원으로 전체의 공급액의 5.4%에 해당합니다. 중개기관 자체 투자액에는 지역·업종별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결성한 자조기금 10.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분야에 자산을 할당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례를 창출하면서도 재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28. 투자자 구성
(단위: 원)

구분	투자건수	투자자수	공급액	공급액 비율	건당 평균액
도매자금	66	3	1,071.8억	56.9%	16.3억
지자체	11	7	62.2억	3.3%	5.7억
공공기관	8	6	77.2억	4.1%	9.7억
공익법인	21	17	253.6억	13.5%	12.1억
금융기관	9	9	155.0억	8.2%	17.2억
기업	19	16	70.5억	3.7%	4.2억
개인	51	44	91.2억	4.8%	1.8억
시민펀딩	4	1	1.6억	0.1%	0.4억
중개기관	32	18	101.4억	5.4%	3.0억
계	221	121	1,884.5억	100%	8.5억

(1) 도매기금 모델의 유효성 입증 - 촉매자본으로서 승수효과 확인

SVS가 공급한 232억원은 1,885억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으로 확장(승수 8.1배)되었고, 정책성 도매자금을 제외하고도 813억원의 신규 사회적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었습니다. 도매기금이 민간·지역 자분을 동원하는 촉매 역할을 7년간 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전체 공급액의 56.9%가 여전히 정책성 도매자금에 기대고 있어, 자생적인 민간 투자 기반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2)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 생태계의 형성과 분화

SVS는 간접집행 원칙(83.0%)을 견지하며 23개 중개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사업 초기부터 협력한 15개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의 운용자산은 4년간 연평균 23.7%, 피투자기업 수는 연평균 18.4% 성장했습니다. 전국형 펀드운용사부터 지역·업종 기반 비영리 중개기관까지 모델이 분화되며 시장이 다층화되었습니다. 한편 지역 중개기관의 영세성(평균 운용자산 5억원)과 전문인력 육성 및 보유 문제는 외부자금 수탁 전문성 측면에서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임팩트-수익 스펙트럼에 기반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운용

A-D 4개 자산군 체계를 통해 전체 자산의 약 2/3를 시장수익률보다 낮은 영역에 의도적으로 배분하면서도, 출연금 기반 종료 사업 8건의 연평균 수익률 7.4%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재무 건전성의 양립 가능성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실증한 것입니다. 향후 도매기금 규모 확대 과정에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임팩트 반영 투자선’을 유지하거나 이동시키려면, 융자 중심을 넘어 위험·수익을 공유하는 투자 기제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IMP 기반 임팩트 관리체계의 도입과 실무 정착

’20년 IMP를 도입해 발굴-심사-의사결정-모니터링-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임팩트 관점을 내재화했고, ‘피투자기업 가치’와 ‘생태계 활성화 효과’를 이중 층위로 관리하는 도매기금 고유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6가지 유형의 임팩트 리스크 사전점검 등 방법론을 실무 프로세스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개기관을 경유한 간접 데이터 수집의 정합성 확보와 회수 후 임팩트 추적체계 고도화는 미완의 과제입니다.

(5) 금융 사각지대 대응과 인내자본·재난대응 채널의 작동

비수도권(30.6%), 협동조합, 사회주택, 재생에너지, 노동공제 등 제도권 금융이 닿지 않는 영역에 인내자본을 공급했고, 코로나19 위기에는 재난연대기금을 통한 비상자금 채널이 신속하게 작동했습니다. 평소 공급과 위기 대응을 모두 수행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손실을 감수하는 D영역(13.0%)을 지속하기 위한 별도 재원 구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과제입니다.

(6) 사회적 금융 고유의 윤리적 회수 원칙 적용

사회적 가치의 지속과 ‘질서있는 엑시트(Exit)’를 고려한 윤리적 회수 관점을 투자설계와 사후관리에 반영하고, 유연자본화 효과·부실채권 차등 대응(도덕적 해이 선별)을 원칙으로 운용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과 구별되는 회수 기제를 제도화했습니다. 다만 55개 중 회수가 개시된 프로그램이 30개(원금 회수율 37.5%)이고 추적체계가 미완이어서, 윤리적 회수의 효과를 종합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점이 이릅니다.

(7) 시장조성자로서의 기반조성 활동과 제도 의제화의 한계

전문가 양성교육, 지역 중개기관 컨설팅, 사회적 금융 포럼, 자금조달 설명회 등 비금융 활동을 병행해 자금 공급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생태계 공백을 보완했습니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다만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화 과제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어,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 형성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표 29. 향후 방향 - 임팩트 규모화

향후 과제

1) 추진 방향

SVS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었던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1기(2018~2021) 성과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 제고”로 나타났고, 정책 효과는 활성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1기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임팩트 규모화”를 추동하는 사회투자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향 1. 금융접근성 제고 → 임팩트 규모화

구분	As-Is	To-Be
추진 방향	“금융 접근성 제고”	“임팩트 규모화”
공급 목적	진입 지원, 운영 안정화	성장 지원, 임팩트 창출
자금 수요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성장 자금, 프로젝트 자금
공급 방식	융자 중심	투자 기제 강화(위험·수익 공유)
선별 기준	기업의 요건	창출하려는 임팩트의 크기와 심도
제공 가치	자금의 양	자금의 성질(촉매자본, 인내자본)

방향 2. 자금 공급 → 시스템 구축(생태계 조성)

구분	As-Is	To-Be
주안점	“자금 공급”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투자자	중앙정부 중심	지역 및 민간 투자자 개발 - 공익법인 사회투자 지원, 지역 금융기관 참여 촉진 - 지자체 기금 활용 개선, 시민투자·자조기금 육성
중개기관	중기·소상공인 인프라 - 공공기관 전달체계 - 금융기관 정책 협력	중개기관 다양화 및 협력구조 마련 - 민간 중개기관 육성, 프로젝트 펀딩 주관사 육성 - 성장 단계별, 임팩트·리스크 스펙트럼별 역할 분담
수요	사회연대경제 기업 중심	지역 활성화 사업, 임팩트 프로젝트 - 양질의 수요 개발(컨설팅, 연합회 통한 전략모델 확산) - 현장 조직 재무역량 강화, 지역 거점기관 다변화
인프라	자격 요건 판별 인프라 구축	임팩트 평가·관리 체계(IMM) 도입·활용 관행 정착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표 30. 향후 방향 -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2) 중점 과제

중점 과제 1. 민관협력 도매기금 자원 확충과 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의 특징과 원리를 존중하며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자금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도매기금의 규모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간의 운용 실적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민관 협력 방식으로 도매기금 조성 및 규모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 정부 마중물 자금과 민간 출자를 결합한 민관협력 도매기금 모델 재설계
- 휴먼금융자산, 공공기금 등 도매기금 규모화를 위한 새로운 자원 발굴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 제도 기반 마련

중점 과제 2. 중개기관 생태계 다층화 및 역량 강화

임팩트 프로젝트를 다루는 중개기관이 부족하고, 신생 중개기관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문제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연대금융 생태계가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주체와 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개기관의 등장을 지원하고 협력구조를 마련합니다.

- 민간 중개기관 성장 및 상호협력 지원, 프로젝트 펀딩 중간사 육성
- 기업 성장 단계별 임팩트 리스크, 스펙트럼별 역할 분담 구조 정착
- 지역·업종 중개기관의 외부자금 수탁 전문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 등 비금융 프로그램 연계, 혼합금융 구조 마련 지원

중점 과제 3. 사회연대경제 조직 유형에 맞는 성장지원 체계 구축

협동조합·비영리·주식회사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법인격과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A~D 자산군 체계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며 재무적 지속가능성도 확보했으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융자 중심을 넘어 조직 유형과 성장 단계에 맞춰 위험·수익을 공유하는 투자 기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직 유형·성장 단계별 자금 성격(촉매자본·인내자본 등)에 맞는 투자 상품 확충
- 후순위·선투자 등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위험 분담 기제 강화

중점 과제 4. 지역 기반 사회연대금융 공급 및 순환체계 구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를 창출하려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지향을 반영해 자금 공급-중개-수요가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기금이 지역의 앵커 투자자 역할을 하고 지역 금융기관·거점기관이 함께 작동하는 지역 단위 공급체계를 촉진합니다.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의 앵커 투자자화 및 운영 개선 지원
- 상호금융기관 등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모델 개발 및 보급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모델 개발 및 안착 지원

중점 과제 5. 양질의 자금 수요 개발과 임팩트 프로젝트 지원

SVS는 사회주택·시민발전·자산화·SIB 등 준비된 임팩트 프로젝트로 성공 사례를 창출하며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규모 있는 임팩트 창출 모델을 지원해 왔습니다. 중개기관 및 다양한 지원 조직과 협력해 수요 기반을 사회연대경제 기업 중심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임팩트 프로젝트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 컨설팅·연합회를 통한 전략모델 확산으로 양질의 수요 개발
- 사회주택·재생에너지·자산화 등 임팩트 프로젝트 대응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
- 현장 조직의 재무역량 강화

중점 과제 6. 사회적 투자자의 다양화와 저변 확대

중앙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낮추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반을 다양한 민간·시민 영역으로 넓힙니다.

-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참여 지원(공익목적 투자제도)
- 시민투자·크라우드펀딩 등 시민 참여 자금 확대
- 지역·업종 단위 자조기금 육성

중점 과제 7. 임팩트 관리체계(IMM) 고도화와 윤리적 회수 체계 완성

IMP를 도입해 ‘피투자기업 가치’와 ‘생태계 활성화 효과’를 이중 층위로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켰으나, 중개기관 경우 간접 데이터의 정합성과 회수 후 임팩트 추적 체계는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팩트 관리 체계와 윤리적 회수 체계를 보완해 고도화합니다.

- 임팩트 평가·관리 체계(IMM)의 도입·활용 관행 정착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 간접 데이터 정합성 확보와 회수 후 임팩트 추적체계 고도화
- 유연자본화·질서있는 엑시트 등 윤리적 회수 원칙 정착

2019-2025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 보고서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발행일 2026년 8월

발행인 하승창

디자인 원스프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 14-10, 2층(서교동, 강화빌딩)

전화 02-2088-3288

팩스 02-2088-3299

이메일 info@svsfun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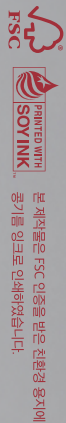
홈페이지 svsfund.org

페이스북 facebook.com/svsfund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자료 및 콘텐츠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있습니다.

IMPACT REPORT
2019-2025

7년의 실험, 길을 열다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 보고서

2019-2025

SV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IMPACT REPORT

7년의 실험, 길을 열다

2019-2025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 보고서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